

金 容 載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論語』와 『孟子』에 나타난

‘以’의 쓰임 분석

- 漢文科 文法教育의 맥락에서 -

2013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崔 芝 熙

『論語』와 『孟子』에 나타난

‘以’의 쓰임 분석

- 漢文科 文法教育의 맥락에서 -

金 容 載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2年 12月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崔 芝 熙

認 准 書

崔芝熙의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論文概要

본고는 한문과 문법의 새로운 모색을 위하여 『論語』와 『孟子』에 나타난 ‘以’의 쓰임을 분석하여 漢文科 수업의 문법교육 맥락에서 ‘문법’에 대한 체계적 설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분야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도 주로 四書에 쓰인 ‘허사’를 主연구대상으로 삼았으나, 이들 연구는 ‘古漢語文法’과 ‘英文法’ 또는 ‘國文法’ 사이에서 ‘漢文文法’만이 갖는 독자적 성격을 밝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그간의 한문교육에서 한문문법은 기타의 외국어 문법 용어를 차용하거나 혼용하는데 머물렀고 결국 한문교육의 교수자나 학습자에게 혼선을 빚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이 개편될 때마다 한문교육에서의 문법용어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상황까지 야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달리 한문문법에 대한 연구를 일반문법과 학교문법으로 나누어 각각의 문법적 관점에서 규명한 허사 ‘以’의 기능을 개사(혹은 전치사), 연사(혹은 접속사)로 나누고,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그들이 갖는 한계를 분석해 보았다. 또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論語』와 『孟子』에 나타난 ‘以’의 용례에 대하여 분류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문법에서 허사는 자립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고, 단독적으로도 문장성분을 이루지 못하는 성분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諸학자들의 품사 분류에 따라 ‘以’는 개사, 연사, 조사, 탄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II장에서는 일반문법에서의 허사 ‘以’의 정의와 기능을 개사와 연사로 크게 구분지어 정리하고, 『論語』와 『孟子』에서 그 용례를 찾아 분류·분석하였다. 개사 ‘以’는 ‘도구, 원인, 시간, 장소, 대상’의 의미론적 역할을 나타낸다. ‘以’가 연사로 쓰일 때는 대등·승접·인과관계를 나타내며 기타 형태소와 결합하여 위의 관계들로 설명할 수 없는 기타 용례들이 발생한다. 이를 『論語』와

『孟子』에 나타난 예시를 들어 정리하였다.

Ⅲ장에서는 학교문법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였다. 한문과 교육과정해설서에 나타난 ‘허사’의 의미와 지도사항들을 최근 20년 내로 한정지어 5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현행 교육과정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7차 교육과정 이전까지는 ‘허자(虛字)’의 명칭을 따르고 있었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허사 ‘以’의 문법적 내용요소를 더욱 자세하게 다루고 있었다.

『한문과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도 일반 문법과 마찬가지로 문법용어 혼용으로 인하여 빗게 되는 정체성 문제가 존재하였다. 문법용어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여 학습자의 문법학습에 혼선을 빚지 않는 용어를 선택해야 한다. 하여 본고에서는 현행교육과정에서 쓰고 있는 개사 및 접속사의 명칭을 따랐다.

중·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서 『論語』와 『孟子』를 인용한 본문을 통해 ‘以’를 설명한 사례는 약 13개의 문장에 그친다. 그 중에서도 『論語』와 『孟子』의 원문을 인용하여 ‘以’의 의미와 기능을 직접적으로 설명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는 『論語』와 『孟子』를 문법적 요소를 설명하기 위한 텍스트보다는 선인들의 삶의 지혜와 바람직한 인성함양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문법에서는 문법용어를 사용하여 ‘以’를 설명하기 보다는 실사의 의미나 문맥과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뜻을 익히는 방식을 취한다. 이와 같이 교과목표는 한문독해능력 신장으로 설정하였지만, 지도사항에서는 문법을 강조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방향은 한문교과의 편제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한문학습에 대해 학습자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본고는 한문 문법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한 문법 설명의 방식을 찾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려는 연구목적은 가지고, 현행 우리나라의 한문문법과 중국어古漢語 문법에서 ‘以’를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를 검토하여 다양한 견해의 차이를 수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허사 ‘以’의 개사와 연사 기능을 중점으로 다루었다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허사 ‘以’의 쓰임 중 통사적 기능 및 다른 품

사로 활용되었을 때의 쓰임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견해의 정의와 용법을 바탕으로 더욱 명확한 문법 설명 체계를 구축·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目 次

□ 論文概要

I. 序論	1
1.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1
2. 선행연구검토 및 연구방법	6
II. 일반문법에서 ‘以’의 쓰임	10
1. 虛詞 ‘以’의 기초적 이해	10
2. 일반문법에서 ‘以’의 정의	16
1) 介詞	16
(1) 介詞의 명칭과 정의	16
(2) 介詞의 특징과 분류	18
2) 連詞	22
(1) 連詞의 명칭과 정의	22
(2) 連詞의 특징과 분류	24
3. 『論語』와 『孟子』에 나타난 ‘以’의 쓰임 분석	26
1) 介詞	26
(1) 道具介詞	26
(2) 對象介詞	31
(3) 原因介詞	33
(4) 時間介詞	34
(5) 場所介詞	35

2) 連詞	37
(1) 對等關係	37
(2) 承接關係	37
(3) 因果關係	40
(4) 其他	42
Ⅲ. 학교문법에서 ‘以’의 쓰임	44
1. 학교문법에서 ‘以’의 정의	44
1) 학교문법의 정의	44
2) 학교문법에서 ‘以’의 정의	46
2. 教科書 內 『論語』·『孟子』의 ‘以’에 대한 분석	55
1) 介詞	55
2) 接續詞	61
3) 以의 고정구조	63
Ⅳ. 結論	68
□ 參考文獻	72
□ Abstract	76

<표> 목 차

<표1> 중국과 한국의 허사 하위분류	14
<표2> 국문법과 한문문법의 품사분류 대조표	15
<표3> 개사 ‘以’의 의미 역할에 따른 분류 비교표	21
<표4>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분석	51
<표5> 중학교 2학년 교과서 분석	51
<표6> 중학교 3학년 교과서 분석	52
<표7>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분석	53
<표8> 중학교 2학년 교과서(다락원) 본문	57
<표9>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교학사) 본문	59
<표10>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교학사) 본문	60
<표11> 중학교 3학년 교과서(지학사) 본문	61
<표12>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교학사) 본문	62
<표13> 중학교 2학년 교과서(대교) 본문	63
<표14> 중학교 3학년 교과서(다락원, 지학사) 본문	64
<표15>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대학서림) 본문	65
<표16>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더 텍스트) 본문	66
<표17>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다락원) 본문	67

I. 序論

1. 研究目的 및 問題提起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한문 독해기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讀書百遍義自見”(책 읽기를 여러 번 하면,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이란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여러 번 되풀이하여 암송할 정도로 多讀한다는 뜻으로, 독서의 빈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문장의 뜻이 저절로 터득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讀書百遍義自見”과 같은 다독의 방식만으로 한문 독해기능을 신장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예와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한문을 상용화 하지 않고 있으며, 오늘날 한문학습이 과거와 같이 많은 시간을 들일 수만은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한문학습은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중요성을 등한시 하고 있는 것도 또한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때문에 한문 학습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부족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 할 것이다.

우리말과 한문은 언어 간의 표현 방법상의 차이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우리말만 가지고 한문을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 우리말에서는 조사(affix)가 첨가되거나 어미(ending)가 변화하여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반면 한문에서는 오로지 어순(word order)에 의존한다. 한문式 표현에서는 각 단어(성분)마다 놓이는 위치가 정해져 있으며, 어떠한 단어(성분)도 반드시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문장의 요소로서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말에서는 “새

가 난다”와 같이 ‘새가’에서 ‘~가’가 주어 표시하고, ‘난다’에서 ‘~다’가 술어의 기능을 표시하지만, 한문에서는 鳥飛와 같이 어순에 의하여 문법적 기능을 표시하면 그만이다. 다시 말해 교착어인 국어는 구문 구성이나 의미의 실현을 단어나 글자의 위치에 의존하지 않고, 조사와 어미의 활용으로 나타내지만, 한문은 일정한 위치로써 문법 성분을 나타낸다.¹⁾

그렇다면 한문 성분의 어순을 익히면 한문독해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처럼 보이나, 한문의 어순을 익힌다 하여도 또한 다른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그것은 한문 품사의 융통성과 주요 성분의 도치 때문이다.

한문의 품사는 실제 뜻을 가지는 실사(實辭: 實詞)와 실사와 어울려 句를 만드는 허사(虛辭: 虛詞)로 나눌 수 있다. 한문에서 실사와 허사는 모두 대단히 융통성이 있다. 즉 문장 속에서 본래의 기능 범위를 뛰어 넘어 임시로 다른 기능에 충당되기도 하고, 다른 품사의 단어들이 지니는 어법기능을 획득하기도 한다.²⁾ 품사의 활용은 실사에서는 주로 명사가 동사로, 수사가 동사로, 명사가 부사어로 쓰이는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다. 허사도 사용빈도가 높고 용법도 또한 매우 복잡하다. 같은 용법의 허사가 서로 다른 글자로 표기되거나, 발음이 가까우면 서로 통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는 하나의 허사가 여러 가지 용법을 지니는 경우도 빈번하다. 한문문장에서 품사의 위치는 고정적이어서 임의로 바꿀 수 없다. 그런데 문장성분의 기본 순서가 어떤 조건에서는 거꾸로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동사와 목적어가 도치된다든지, 개사(介詞)와 목적어가 도치되는 등의 사례가 매우 많

1) 김용길, 『한문해석방법』, 교학사, 2004.

2) 심경호, 『한학연구 입문』, 이회문화사, 2003, 106쪽.

다.

위와 같은 두 가지 경우에서 독해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요소 중 하나는 단연코 ‘허사’이다. 허사는 주로 문법적 의미를 규정하는 기능을 지녔기 때문에 주어의 동작이나 행위와 관계된 ‘시간, 공간, 원인, 비교, 상황, 한정, 명령, 정도, 상태, 조건, 전환, 접속, 원인, 서술, 의문, 반어, 감탄, 가능, 사동, 피동 등’을 이끌어내는 작용을 하기도 하며, 句 와 句 사이에 놓여 앞뒤의 문맥을 이어주기도 한다. 또한 문장의 첫머리와 끝에 놓여 감정의 색채를 증가시키기는 역할도 자임한다. 한문 자료를 다루는 학자들과 초학자들에게 허사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 허사의 구체적인 의미와 기능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허사의 이해는 한문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건 가운데 하나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는 종종 한문 典籍을 독해할 때에 ‘以’가 쓰인 구문을 접하게 되면 의문을 느끼는 경우가 더러 있다. 가령 아래와 같은 한문 문장에서 ‘以’의 쓰임과 해석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된다.

- 雖不吾以 吾其與聞之~ 3) (『論語』, 「子路」14章)
- 將有以利吾國乎~ 4) (『孟子』, 「梁惠王」上 1章)
- 自天子以至於庶人~ 5) (『大學章句』, 1장)

3) 『論語』, 「子路」: 冉子 退朝 子曰 何晏也 對曰 有政 子曰 其事也 如有政 雖不吾以 吾其與聞之

4) 『孟子』, 「梁惠王」上: 孟子見梁惠王 王曰 叟不遠千里而來 亦將有以利吾國乎 孟子對曰 王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 王曰 何以利吾國 大夫曰 何以利吾家 士庶人曰 何以利吾身 上下交征利而國危矣 萬乘之國 殺其君者 必千乘之家 千乘之國 殺其君者 必百乘之家 萬取千焉 千取百焉 不爲不多矣 苟爲後義而先利 不奪不厭 未有仁而遺其親者也 未有義而後其君者也 王亦曰 仁義而已矣 何必曰利

위와 같은 문장에서 허사 ‘以’의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다음 세 문장은 위의 용례를 해석한 것이나 ‘以’의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雖不吾以 吾其與聞之~ : 비록 나를 써주지는 않으나 내가 참여하여 들었을 것이다.
- 將有以利吾國乎~ : 장차 내 나라를 이롭게 함이 있겠습니까?
- 自天子以至於庶人~ :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 까지 …….

역시 아래의 『孟子』에 보이는 두 經文에서도 똑같은 의문문 이지만 ‘以’의 의미와 쓰임에 대하여 이들을 명확히 구분·비교하여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 燕可伐與? 6) (『孟子』, 「公孫丑」下 8章)
- 孰可以伐之? 7) (『孟子』, 「公孫丑」下 8章)

위와 같이 허사 ‘以’는 사용빈도가 높고 의미와 용법이 매우 다양하여, 문장을 해석하고 번역하는 데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以’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문법책을 참고하다보면 ‘以’를 풀이하는 어려움보다 ‘以’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할 것이다. 그것은 한문문법을 설명하는

5) 『大學章句』：自天子以至於庶人 壹是皆以修身爲本
 6) 『孟子』, 「公孫丑」下：沈同以其私問曰 燕可伐與 孟子曰可 子噲不得與人燕 子之不得受燕於子噲 有仕於此 而子悅之 不告於王而私與之 吾子之祿爵 夫士也亦無王命而私受之於子 則可乎 何以異於是
 7) 『孟子』, 「公孫丑」下：齊人伐燕 或問曰 勸齊伐燕 有諸 曰未也 沈同問燕可伐與 吾應之曰可 彼然而伐之也 彼如曰 孰可以伐之 則將應之曰爲天吏則可以伐之 今有殺人者 或問之曰 人可殺與 則將應之曰可 彼如曰 孰可以殺之 則將應之曰爲士師則可以殺之 今以燕伐燕 何爲勸之哉

용어의 통일성이 부족하고, ‘以’의 쓰임을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한문문법을 설명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①영어권의 문법이론을 한문에 적용하여 세우는 방법. 둘째, ②중국 고문 이론서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법용어를 차용한 것, 셋째는 ③전통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다.⁸⁾ 같은 ‘以’의 쓰임을 설명하더라도 영어권의 문법을 적용하면 ‘전치사’가 되고, 중국의 고문이론들을 적용하면 ‘개사’로 설명되어지는 경우가 그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다양한 한문문법의 설명방식은 ‘한문의 정체성’ 문제에까지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한문’은 ‘국어’로도 ‘외국어’로도 설명되어질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한문은 중국어이지만 동시에 전근대시기 동아시아의 공동 문언문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문자이다. 古代 중국어를 기초로 형성된 동아시아 공동 문언문을 부르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통용되는 이름이 바로 한문(漢文)이며, 우리 민족이 수 천 년 동안 우리말 화(化)해서 사용한 언어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한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대신 문언(文言, 또는 문언문[文言文])이나 고문(古文)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 한문은 시기적, 지역적인 외연(外延)이 넓은 개념이므로 모든 언어적 성격에서 고전 중국어와 일치하지 않는다.⁹⁾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한문과 문법의 새로운 모색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한문공부의 저본이자 교본이라 할 수 있는 경서 가운데 『論語』와 『孟子』를 주텍스트로 선정하였고, 이들 경서 안에 쓰여진

8) 송병렬, 「教科書 漢文 文法에 대한 再考」, 『한문교육연구』, 한국한문교육학회, 제10호, 1996.

9) Edwin Pulleyblank, 양세욱 옮김 『고전 중국어 문법 강의』, 월인, 2005, 402쪽.

‘以’의 쓰임과 용례를 분석하여 ‘漢文科 文法教育’의 맥락에서 한문문법에 대한 체계적 설명 방식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먼저 허사 ‘以’의 기본적 의미와 쓰임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漢文科 教育課程에서 간간히 서술하였던 허사 ‘以’의 양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우리나라의 한문교육에서 설명되고 있는 ‘以’와 중국어 古漢語 문법에서 서술하고 있는 ‘以’의 차이를 검토하여, 다양한 견해의 정의와 용법을 바탕으로 가장 알기 쉽고 간단하며 명확한 문법 설명 체계를 구축·모색하고자 함에 연구의 부가가치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나아가 허사 ‘以’의 연구는 漢語의 품사 문제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 유익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여러 원전들의 정확한 독해와 이해, 그리고 지속적이며 발전적인 경학 연구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 자못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2. 先行研究 檢討 및 研究方法

본고의 선행연구 검토는 한문문법 연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먼저 허사 ‘以’를 설명한 학교문법 연구들을 살펴보고, 일반문법에서 설명하는 방식과 비교·대조하여 그 차이점을 검토하고자 한다.¹⁰⁾

10) 이군선·김성중, 『한문과 문법론』, (보고사, 2012)에서는 한문문법과 관련된 논문을 學校文法 제정과 교과서 문법분석, 문법교육의 실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나, 본고에서는 이 분류를 참고하여 學校文法の 범주에 교과서 문법분석을 포함하였으며 學校文法과 대립되는 말로 學問文法을 추가하였다. 문법교육연구와 관련된 것은 일선학교에서의 문법교육의 방법적인 면을 다룬다고 보아 내용적 측면에서 學校文法과 學問文法만을 논의하고자 한다.

학교문법에 대한 연구들은 국내의 한문교육 관련 단행본 저서들과 한문교육과 관련된 학회인 ‘한문교육연구학회’와 ‘한자한문교육학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참고하였다. 학교문법에 관련된 연구들은 대체로 학교문법 제정과 관련하여 학계에서 쟁점이 되는 품사, 한자어의 짜임, 문장의 형식, 문법용어의 문제들 혹은 교과서 문법 분석의 내용적 오류 등이 주를 이룬다.¹¹⁾ 허사와 관련된 쟁점으로는 품사의 분류¹²⁾가 주로 이루고 있으나, 품사의 내용영역까지 다룬 연구는 아직 없으며, 허사의 하위분류까지 세부적으로 나누기 보다는 포괄적인 측면에서 문법용어를 다룬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일반문법과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대상의 조건은 첫째, 중국학 및 한문학 연구 논문들 중에서 허사 일반, 혹은 개사 일반을 연구대상으로 삼되, 본고에서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는 ‘以’의 개사, 접속사 용법, 다른 품사로의 활용을 주제로 하는 논문들을 설정하였다.

둘째, 허사 ‘以’를 설명하기 위해 『論語』와 『孟子』를 연구텍스트로 삼은 논문들로 제한을 두고 출발하고자 한다.¹³⁾ 그러나 내용상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기타 자료를 연구텍스트로 설정하거나, 한문 문법 연구와 관련 있는 단행본도 함께 참고하였다.

일반문법에서의 허사연구의 한계는 첫째, 연구대상의 문제이다. 허

11) 前掲書 13~20쪽 참조.

12) 중국학자들과 한국학자들의 품사 분류 비교

13) 국내 연구 논문으로는 한학중, 『漢語文言의 介詞研究: 『孟子』를 中心으로』, 충남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86. / 임병권, 『『孟子』의 虛詞 ‘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변형우, 「『論語』 介詞연구」, 『中國文學研究』, 韓國中文學會, 제18집, 1999. / 송병렬, 「교과서 한문 문법에 대한 재고」, 『한문교육연구』, 한국한문교육연구학회, 제10호, 1996. / 여병창, 「3部 經典중의 ‘以’자 용법 비교 연구 -『論語』, 『孟子』, 『荀子』」, 『中國文學研究』, 韓國中文學會, 제33집, 2006 등이 있다.

사연구 텍스트가 주로 『孟子』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四書’ 전체가 허사 연구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論語』도 포함되어있지만, 『論語』의 용례를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방법상의 문제이다. 많은 연구들이 四書 經文을 문법적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 의미론적 혹은 통사론적 접근으로 연구를 시도하는 경우가 주류를 이룬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은 공시적 관점에서 한 시대의 언어 모습을 기술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다언어(多言語)의 문법 용어로 기술되고 있는 설명이나 분류의 기준이 다르고 독자적인 한문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또한 한계가 있다.

국외, 특히 중국에서의 ‘허사’에 대한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상당한 수준이어서 일부 문제에 대한 토론은 이미 학자間 이견이 거의 없을 만큼 깊이 있는 논의가 축적되어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역시 대다수의 논문이 특수구문이나 용법 그리고 상용 어구에 대한 부분적 연구에 치중되어 있고, 폐쇄된 텍스트에 대한 공시적 묘사를 통한 역사변천과정에 대한 추적과 연구이론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전체 연구의 10%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¹⁴⁾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먼저, 『論語』와 『孟子』를 연구텍스트로 삼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가 다루지 못했던 허사 ‘以’의 더 많은 용례들을 다루어 『論語』와 『孟子』에 나타난 ‘以’의 의미와 쓰임에 대하여 비교적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14) 여병창, 「3部 經典중의 ‘以’자 용법 비교 연구 - 『論語』, 『孟子』, 『荀子』, 『中國文學研究』, 제33집, 2006, 381쪽.

다음으로, 기존의 의미론적, 통사론적 접근 방식의 틀 안에서 일반 문법과 學校文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통일성이 부족한 기존의 한문문법 연구들을 보완하기 위해 규범성과 보편성, 통일성을 기해야하는 學校文法과 학자들마다 이견을 보이는 일반문법의 차이를 규명하여 ‘以’의 문법적 분류와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는 문법적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II. 일반문법에서 ‘以’의 쓰임

1. 虛詞¹⁵⁾ ‘以’의 기초적 이해

옛 사람들은 허사를 중시하였다. 중국어는 형태변화가 없어서 어순과 허사가 어법의 중요한 표현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中國의 高明凱는 “西洋語 중에서 虛字가 없는 것은 아니나 漢文에는 西洋語에 비하여 虛字가 훨씬 많아서 漢文의 言語的 機能[function]은 태반 虛字가 지니고 있다.”고 했으며 王力은 虛字를 “文法的 成分”이라 하여¹⁶⁾ 허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고대에는 허사를 ‘詞’라고 불렀다. 《說文》¹⁷⁾의 “曰 자는 詞이다.”라는 구절에 대해 徐鍇는 “詞라고 부르는 것은 뜻이 없어 어기를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또 《說文》에서는 “矣는 말을 마치는 詞이다.”, “者는 사물을 구별하는 詞이다.”, “各은 서로 다르게 나타내는 詞이다.”, “皆는 함께하는 詞이다.”, “寧은 원한다는 詞이다.”, “曾은 뜻을 펼쳐내는 詞이다.”, “爾는 반드시 그렇다는 詞이다.”고 하였다. 여기에 쓰인 ‘詞’는 허사를 가리키며, 이는 모두 《說文》에서 허사의 특징과 용법에 대해 간명하게 설명한 예이다.¹⁸⁾

漢代에는 훈고학으로 경전을 주석하기 위해 허사의 의미 풀이에

15) 虛詞는 虛字 혹은 虛辭의 명칭을 쓰기도 하지만 본고에서는 虛詞로 통일하였으며, 諸학자들의 허사의 분류를 열거할 때에는 각 학자들이 주장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16) 정우상, 「漢文 文法 統一의 必要性」, 『한자한문교육』,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제16집, 2006.

17) 『설문해자(說文解字)』는 중국 漢나라 때의 허신(許慎)이 만든 문자 해설서이다. 『설문(說文)』은 약칭이다.

18) 蔣紹愚, 이강재 譯, 『고대중국어어휘의미론』, 차이나하우스, 2012, 32쪽.

비중을 두었으며, 宋代에는 시문을 짓는 방법으로 설명되어 왔다. 清代의 劉淇도 『助字辨略』自序에서 허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실사와 허사를 인체의 체골과 성정에 비유한 것으로, 문법의 범주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¹⁹⁾

고대 가장 먼저 허사를 연구한 책은 元代 盧以緯의 《語助》이다. 이 책은 모두 66개 조목으로 나누어 135개의 단어 혹은 관용구에 대해 풀이하였다. 한 허사의 다양한 용법을 분석하기도 하고 서로 비슷한 허사의 용법상의 차이를 비교하기도 하였는데, 허사에 대한 이전 시대의 풀이보다 훨씬 상세하다. 청대 袁仁林의 《虛字說》도 연구 방법은 대체로 《語助》와 비슷하지만, 허사가 표현하는 ‘뜻과 느낌’을 비교적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그의 견해는 후에 《馬氏文通》에 의해 계승되었다.²⁰⁾

허사의 연구에 있어 본격적으로 문법적인 시각에서 허사를 논한 것은 馬建忠의 『馬氏文通』부터 라고 할 수 있다. 馬建忠 이전의 허사연구는 품사개념이나 통사적 개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문법의 체계를 이루어 허사를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책에서는 실사와 허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무릇 字 가운데 풀이할 만한 이치가 있는 것을 實字라 하고, 풀이하여 實字의 내용을 해명할 수 없는 것을 虛字라 한다.²¹⁾

고 하여 품사분류는 ‘依義別類’라는 원칙하에 의미를 기준으로 하

19) 정순영, 『三國遺事의 虛詞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2. 33쪽.

20) 蔣紹愚, 이강재 譯, 『고대중국어어휘의미론』, 차이나하우스, 2012, 33~34쪽.

21) 馬建忠, 『馬氏文通』, 商務印書館, 1998. 19쪽: “凡字有事理可解者曰實字 無解而惟以助實字之情態者曰虛字.”

여 실사를 名字, 代字, 動字, 靜字, 狀字의 다섯으로, 허사를 介字, 連字, 助字, 歎字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반면, 黎錦熙²²⁾은 품사분류의 기준을 통사적 기능에 설정하여 五流九品으로 나누었다. 五類는 實體詞, 述說詞, 區別詞, 關係詞, 情態詞으로 구분하였고, 實體詞에는 名詞와 代名詞가, 述說詞에는 動詞가, 區別詞에는 形容詞와 副詞가, 關係詞에는 介詞와 連詞가 분류되며, 情態詞에는 助字와 歎詞를 분류하였다.

周法高²³⁾ 역시 통사적 기능에 의하여 실사와 허사를 구분하였다. 周法高는 文의 주어나 서술어가 될 수 없는 것은 모두 虛辭라고 칭하였다. 實辭에는 文의 주어나 동사가 될 수 있는 名詞와 動詞를 분류하고, 虛辭에는 文의 주어나 동사가 될 수 없는 代詞, 數詞, 助名詞(單位詞), 方位詞, 助謂詞, 狀詞, 副詞, 連詞, 介詞, 歎詞 卽單呼詞, 助詞를 분류하였다.

顧越²⁴⁾은 품사의 용법은 형식에 의해서 착안할 수만은 없고, 반드시 구체적 언어 환경 속에서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전제로 實辭에는 名詞, 動詞, 形容詞, 數詞와 量詞를 虛辭로는 代詞, 介詞, 副詞, 連詞, 語氣詞, 感歎詞와 같이 10품사로 분류하였다.

黃六平²⁵⁾은 단어를 대표하는 意義에 의하여 ‘詞彙意義’와 ‘語法意義’로 구분하여 전자에 속하는 것은 實辭, 후자에 속하는 것을 虛辭로 나누었다. 實辭에는 名詞, 代詞, 動詞, 形容詞가 속하며, 虛辭에는 副詞, 介詞, 連詞, 助詞, 歎詞로 9품사로 분류하였다.

22) 黎錦熙, 「中國語法中的詞法研究」, 『中國語文』, 9월호, 1953.

23) 周法高, 『中國古代語法(造句編)』,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1972.

24) 顧越, 『文言詞法常識』, 北京, 北京出版社, 1964.

25)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香港, 中華書局香港分局, 1978.

譚全基²⁶⁾는 품사설정의 기준을 단어의 의미와 어법작용에 의거하였다. 實辭는 名詞, 代詞, 動詞, 形容詞, 數詞, 量詞가 해당되며, 虛辭로는 副詞, 介詞, 連詞, 助詞, 數詞를 포함하여 11품사로 나누었다.

반면 국내의 학자들의 품사의 분류²⁷⁾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가원은 11품사로 분류하였으며 名詞, 代名詞, 動詞, 形容詞, 副詞, 接續詞, 補助詞, 前置詞, 助詞, 終結詞로 나누었다.

권중구는 9품사로 분류하였으며 名詞, 代名詞, 動詞, 形容詞, 副詞, 補助詞, 助詞, 接續詞, 感歎詞로 나누었으며, 품사 설명 중에 前置詞, 後置詞, 終尾詞(歇尾詞, 歇詞, 終詞, 終結詞)를 더 제시하였다.

박지홍은 12품사로 구분하였으며 名詞, 代名詞, 數詞, 形容詞, 動詞, 指定詞, 冠形詞, 副詞, 助詞, 感歎詞, 兼詞, 接續詞로 구분하였다.

최신호는 12품사로 구분하였으며 名詞, 代名詞, 動詞, 形容詞, 副詞, 助動詞, 前置詞, 後置詞, 接續詞, 終尾詞, 感歎詞

양광석은 10품사로 나누어 名詞, 代名詞, 動詞, 形容詞, 副詞, 接續詞, 介詞, 助詞, 感歎詞를 포함하였다.

최상익은 10품사로 나누고 있으며, 名詞, 代名詞, 動詞, 形容詞, 副詞, 介詞, 連詞, 祖述詞를 포함한다.

이후로도 학자들이 분류한 각각의 기준에 따라 대개 10품사에서 11품사로 분류하여 대동소이한 의견들이 분분하였다. 한문의 특성상 품사를 고정시키기 어려운 한계 때문이다.

중국과 한국의 학자들의 품사분류를 통해 허사의 하위분류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품사들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²⁸⁾

26) 譚全基, 『古代語法基礎』, 香港, 中華書局香港分局, 1982.

27) 안재철, 「한문교육에 있어서의 문법용어의 諸問題」, 『한문교육연구』, 한국한문교육연구학회, 제10호, 1996, 187쪽.

28) 명칭은 詞로 통일하여 異稱을 검토하였다.

<표1> 중국과 한국의 허사 하위 분류

中國				韓國				
介詞	連詞	助詞	歎詞	介詞	接續詞	助詞	感歎詞	독립 품사
介字	連字	助字		介字	連字	助字	歎詞	後置詞 指定詞
繫詞	聯詞	語氣詞	歎字	前後置詞	連詞	語氣詞	歎字	前置詞 疑問詞
	聯結詞		象聲詞				象聲詞	不定詞
			單呼詞				擬聲詞	轉詞 添詞

중국의 학자들과 한국의 학자들은 허사의 의미와 기능을 고려했을 때 介詞, 連詞, 助詞, 歎詞를 하위품사로 분류하는 데에는 대체적으로 같은 의견을 가진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介詞를 한국에서는 前置詞, 後置詞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과 중국의 連詞를 한국에서는 接續詞라고도 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표2>²⁹⁾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문문법과 국문법을 비교해 보면 세 가지 차이점을 알 수 있다.

29) 장호성, 「漢文 學校文法 制定 方案의 摸索」, 『한자한문교육』,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제16집, 2006.

<표2> 국문법과 한문문법의 품사분류 대조표

國文法				漢文 文法 ³⁰⁾				
形態	機能	意味	하위 분류	意味	機能	意味	하위 분류	
不變語	獨立言	感歎詞	接續助詞 補助詞	虛辭	獨立言	感歎詞		
	關係言	助詞	格助詞		主格助詞	前置詞		時間
					目的格助詞			場所
					補格助詞			原因
					冠形格助詞			方法
					副詞格助詞	所有		
					呼格助詞	接續詞	竝列	
	可變語	用言	敘述格助詞		選擇			
順接								
				逆接				
				因果				
				假說				
				讓步				
				語氣言	語助詞			

첫째, 품사의 분류를 국문법에서는 형태를 기준으로 한문문법에서는 의미를 기준으로 한다. 둘째, 국문법의 關係言은 助詞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주격·목적격·보격 조사와 같은 격조사들을 포함하지만 한문문법에서는 前置詞(혹은 介詞)와 접속사로 분류하여 시간·장소·원인이나 순접, 역접, 병렬,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셋째, 한문문법의 조사는 중국 및 한국의 학자들의 견해에서 볼 수 있듯이 語氣詞를 포함한다.

30) 허사를 의미기준에 의해 감탄사, 전치사, 접속사, 어조사로 나눈 것은 장호성이 논의한 10품사 분류기준에 의거한 것이다.

여러 학자들의 분류로부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실사와 허사의 개념을 공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實詞는 자립적으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의미론적 기능과 문장에서 단독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 통사적 기능을 공유한다는 것과 虛詞는 자립적으로 의미를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독으로 문장성분을 이룰 수 없고, 다른 형태소에 종속되어서만 의미를 가진다.

둘째, 대개 虛詞의 하위분류로 용어는 달리 설명하고 있으나 介詞, 連詞, 助詞, 歎詞를 포함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한 의견을 취한다.

허사가 비록 문장의 주요 성분으로 쓰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성분과 성분 간의 관계를 맺어주거나, 단위 문장의 의미와 성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위 문장을 확실하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성질이나 문장의 어기를 조절하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구실을 하는 형태소인 허사의 쓰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2. 일반문법에서 ‘以’의 정의

1) 介詞

(1) 介詞의 명칭과 정의

介詞의 개념에 대해서는 문법을 연구하는 중국 고대한어문법학자나 한국 한문문법학자들이나 한결 같이 이를 虛詞로 구분하는 데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명칭에 있어서는 중국학자들 간에 있어서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 학자들 역시 개사명칭에 대해 중국어법의 용어와 기존의 국어나 영어문법 등의 용

어 들 중 어떤 명칭을 따르느냐에 관해 논란이 있다. 대표적인 중국 학자들의 介詞의 명칭에 관한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介字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이다. 馬建忠은 『馬氏文通』에서 介詞를 介字라고 부르고 介字는 虛詞로서 實詞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陳承澤도 馬建忠과 마찬가지로 介字라고 부르고 이는 名詞와 代詞의 앞뒤에 놓여 다른 술어와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을 介字라고 한다고 했다.

둘째, 介詞가 動詞에서 전성되었다는 특징에서 연유한 명칭으로 부른 경우가 있다. 呂叔湘은 介詞를 초창기에는 술어 속에서 주요성분이 될 수 없다는 뜻에서 副動詞³¹⁾라고 불렀다. 술어 속에서 주요성분으로 쓰이는 사례³²⁾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요 성분으로 쓰이지 않는 동사이기 때문에 副動詞라고 불렀던 것이다. 王力은 처음에는 介詞를 助動詞라고 불렀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모종의 행동을 직접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를 도와서 어떤 행동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다는 관점 때문이었다. 조동사는 근본적으로 동사에서 전향되어 왔기 때문에 동사에 연속시켜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80년대 후반기부터는 이러한 주장을 반복하고 다른 어법학자들과 보조를 맞추어 介詞라고 간주하였다. 丁聲樹는 介詞를 次動詞라고 불렀는데 介詞가 때로 문장 속에서 주요 술어 성분으로도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介詞를 포함한 문장에서 만약 동사를 빼놓는다면 완전한 문장이 성립될 수 없다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31) 把, 被, 從, 對於 등

32) 在, 往, 向, 到

셋째, 介詞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張志公을 비롯한 胡裕樹, 朱德熙, 黃伯榮 및 張靜 등 대표적인 현대어법학자들과 북경대학 및 북경사범대학 등 주요 대학에서 발행된 『現代漢語』와 『古代漢語』는 물론 王力の 『漢語史稿』와 楊伯峻과 何樂士가 공저한 『古代漢語語法』과 『中國文法構話』 등 대표적인 어법서에는 모두 介詞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³³⁾

이와 같이 중국의 고대한어문법에서는 介詞라는 명칭을 택하여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한문문법에서는 개사와 전치사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 본고의 II장에서는 중국에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는 개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우리나라의 개사와 전치사의 명칭문제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는 III장의 학교문법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2) 介詞의 특징과 분류

개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성분에 의지하여 의미를 실현하는 품사로서, 명사·대명사·명사 상당 어구 앞에 쓰여 술어의 동작 상태가 이루어지는 도구·시간·장소·원인 등을 나타낸다. 개사는 ‘개사+명사류’의 구조를 이루어 술어를 수식 혹은 한정하는 부사어나 술어를 보충하는 보어로 사용될 수 있다. 개사의 의미와 형식상의 특징에 대하여 임병권³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독립적으로 문장성분이 될 수 없고, 다른 말과 결합하여야만 문장성분이 된다.

33) 허벽, 『中國古代語法』, 신아사, 1997. 288~291쪽.

34) 임병권, 「『孟子』의 虛詞 ‘以’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② 개사는 體言과 결합한다. 명사 혹은 명사성의 말이며, 문법 단위 상으로는 낱말과 어구가 결합할 수 있다.

③ 개사는 그 빈어의 앞에 와서 결합하는 것이 표준형이며, 그 빈어가 개사의 앞뒤 양쪽에 동시에 연결될 수는 없다.

④ 개사 어구의 문장 안에서의 위치는 중심술어인 동사·형용사의 앞과 뒤에 다 같이 가능하며, 狀語 또는 補語가 된다.

⑤ 개사어구는 스스로가 일차적으로 속하고 있는 문장의 중심술어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

⑥ 개사어구들은 중심술어와 관련된 시간·장소·방법·원인·대상 등을 표시한다.

이와 같이 ‘以’가 개사로 쓰이는 경우는 ‘以’字의 여러 쓰임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통계에 의하면 ‘可以’, ‘何以’, ‘所以’, ‘是以’, ‘以爲’등 상용어구 중에 출현하는 경우 외에 단독으로 쓰인 개사 ‘以’의 용례는 『論語』 77번, 『孟子』 219번 쓰였다.³⁵⁾

‘以’의 의미론적 기능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그 견해가 다르다.³⁶⁾

① 任炳權³⁷⁾은 개사어구의 의미론적 역할에 따라 Charles. J. Fillmore의 격문법(格文法, Case Grammar)의 개념을 참고하여 도구격, 원인격, 대상격, 행동격, 동반격, 시간격, 장소격의 7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특이할 만한 것은 도구인 ‘以’어구의 의미역할을 다시 道具·手段·方式·資格·標準·部數狀況으로 세분하여 명시한

35) 여병창, 「3部 經典중의 ‘以’자 용법 비교 연구 - 『論語』, 『孟子』, 『荀子』, 『中國文學研究』, 제33집, 2006. 387쪽.

36) 四書 經文 중 『論語』와 『孟子』를 연구텍스트로 삼아 虛詞를 연구한 논문의 의견을 취하였다.

37) 임병권, 『『孟子』의 虛詞 ‘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점이다.

② 韓學重³⁸⁾은 개사용법을 의미상 처소관계·시간관계·빙자관계·원인관계·목적관계·관절관계·문여관계·방면관계·대상관계로 구분하였다. 이 중에서 ‘以’의 의미론적 기능은 時間관계, 憑藉관계, 原因관계, 動賓관계에 해당한다.

③ 許璧³⁹⁾은 개사의 종류는 문장 속에서 개사의 작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개사의 용례는 동작과 관련된 시간을 이끌어 내는 경우, 대상을 이끌어 내는 경우, 장소를 이끌어 내는 경우, 방법, 조건, 도구 등을 이끌어 내는 경우, 동작행위의 원인과 목적을 이끌어내는 경우, 처치대상을 이끌어 내는 경우, 훈계하는 언행을 이끌어 내는 경우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개사 ‘以’의 의미역할은 동작과 관련된 도구, 방법, 조건 등을 이끌어 내는 경우, 원인과 목적을 이끌어 내는 경우, 동작과 관련된 시간과 장소를 이끌어 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邊濫雨⁴⁰⁾는 개사의 기능을 동작이나 상태와 관련된 시간, 대상, 도구 원인이나 목적 등을 끌어들이는데 있다고 보았다. 개사의 기능을 시간을 끌어들이·처소를 끌어들이·대상을 끌어들이·도구, 근거, 혹은 방식을 끌어들이·원인이나 목적을 끌어들이므로 분류하고, ‘以’는 道具·根據 혹은 方式, 原因을 끌어들이는 3가지 기능을 겸한다고 보았다.

⑤ 呂炳昌⁴¹⁾은 개사의 용법을 두 개의 어휘항목 ‘所用’과 ‘所因’으

38) 한학중, 『漢語文言의 介詞研究: 『孟子』를 中心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39) 허벽, 『中國古代語法』, 신아사, 1997, 293~311쪽.

40) 변형우, 『『論語』介詞연구』, 『中國文學研究』 제 18집, 1999.

41) 여병창, 「3部 經典 中の ‘以’자 용법 비교 연구 - 『論語』, 『孟子』, 『荀子』

로 나누었다. 전자는 주로 문장 중심술어의 조건, 환경, 도구, 방식 등 상황성분을 이끈다고 보았으며, 후자는 다른 절의 원인 혹은 결과를 소개하는 작용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개사의 의미는 개사 다음에 위치하는 성분과 술어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술어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사 ‘以’의 의미론적 기능을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 3> 개사 ‘以’의 의미 역할에 따른 분류 비교표

의미 역할	도구	원인	시간	장소	기타		
					대상	행동	동반
임병권	◎	◎	◎	◎			
한확중		◎ (결과)	◎			동반	방자
허 벽	◎	◎ (목적)	◎	◎			
변형우	◎	◎		처소			
여병창	◎ (수단- 목적)	◎					

<표3>에 의하면 개사 ‘以’가 ‘원인’의 의미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모두 같으며, ‘도구, 시간, 장소’를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 ‘도구’의 범주는 학자마다 달라서 도구, 수단, 방식, 근거, 목적 등 여러 명칭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행동, 동반,

1, 『中國文學研究』, 제33집, 2006.

동변, 빙자'의 의미는 학자들의 독자적 견해로 개사 '以'어구의 의미 보다는 '以'의 문장 상의 위치나 '以' 앞에 놓이는 동사의 속성에 따라 나누는 등 분류기준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위 표를 기준으로 하여 '以'의 의미역할을 학자마다 보편적으로 일치하는 견해인 '도구·원인·시간·장소'로 구분하고, '대상'의 의미역할을 덧붙여 『論語』와 『孟子』에 나타난 '以'의 용례를 설명하였다.

2) 連詞

(1) 連詞의 명칭과 정의

古代 漢語에 보이는 連詞는 현대 한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 개 이상의 어휘는 물론 詞組⁴²⁾와 문장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로 우리말의 접속사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명칭도 다른 품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자의 주관적인 견해 차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불러 왔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연사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連詞는 연결 과정에서의 역할 여하에 따라 여러 가지 관계를 이끌어 내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는 특히 문장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連詞'는 단순한 어휘 뿐 아니라 詞組와 문장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절한 접속사를 활용하여 연결시키고 있는데 고대한어에서는 이러한 연결 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고대한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접속사의 역할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될 정도로 고대한어에서 접속사가 차지하는 위

42) '구(句)'[phrase]에 해당한다.

치는 중요한 것이다. 연사는 대부분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 주고 있는데 이처럼 연사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문장은 복합문에 속한다.

근래에는 중국에서 연사로 명칭을 통일하였으나 연사의 명칭은 관계사, 접속사 등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불려왔다. 연사의 명칭 뿐만 아니라 개사와 연사의 구분에 있어서도 학자들의 견해는 대동소이하다. 허벽은 『中國古代語法』에서 연사의 명칭과 정의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차이를 밝혔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⁴³⁾

馬建忠은 『馬氏文通』에서 連詞를 “連字”라고 부르고 이는 虛詞로서 어휘나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특히 문장을 연결하는 과정에서는 순접과 역접 외에도 제기와 추진을 나타내는데 가지 유형의 連詞로 다루었다.

王力은 連詞와 介詞를 구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連詞를 다루는 과정에서 連詞라는 명칭을 썼으면서도 介詞와의 구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아예 ‘連結詞’라고 부르고 이들의 변천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陳承澤도 馬建忠과 마찬가지로 連詞라고 부르지 않고 連字라고 불렀으며 이는 어구를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一般連詞와 條件連詞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黎錦熙는 連詞라는 명칭을 썼는데 이는 그전까지 쓰이지 않았던 명칭을 처음으로 썼다는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는 連詞를 어휘와 문장구절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楊樹達도 黎錦熙와 마찬가지로 連詞라는 명칭을 썼는데, 그는 연사를 9가지 분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과정에서 『馬氏文通』과 연결시켜 비교 분류한 것이 이색적이다.

43) 허벽, 『中國古代語法』, 신아사, 1997, 316~318쪽.

呂叔湘은 초기에는 關係詞라는 명칭을 썼지만 후기에는 連接詞라는 명칭을 썼다가 최근에는 連詞라는 명칭을 따르고 있다.

高名凱도 黎錦熙와 마찬가지로 連詞라는 명칭을 썼는데 이를 고대한어와 현대한어의 경우를 의식하여 다루었다.

丁聲樹는 連詞에 대한 서술보다는 몇 개의 예만을 들고 있는데 명칭은 연사라고 부르고 고대한어와 현대한어의 구별 없이 나열 하고 있을 뿐이다.

張志公등이 주편한 『現代漢語』외에도 胡裕樹와 黃伯榮 및 張靜 등이 주편한 대표적인 『現代漢語』도 모두 連詞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이들 저서의 서술내용은 대체적으로 대동소이 하다. 그러나 黃伯榮 등이 주편한 현대한어에서는 특히 개사와 연사의 차이점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다룬 것이 인상적이며 이러한 구체적인 구분은 후학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連詞의 특징과 분류

‘連詞’는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문장성분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식의 역할도 단독적으로 할 수 없다. 즉, 연사는 단독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며 문장 속에서 어떠한 주요 성분도 되지 못한다. 그리고 부사나 개사와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에 대한 회답을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즉, 문장 속에서 단지 두 개 이상의 성분을 연결시켜 주는 작용을 할 뿐이다.

‘개사’와 ‘連詞’는 필연적으로 매우 비슷한 품사다.⁴⁴⁾ 하여 王力은,

44) 임병권, 「『孟子』의 虛詞 ‘以’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7, 124쪽.

連詞과 개사는 반드시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첫째, 그것들 자신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둘째로 駢文에서 그것들이 서로 對句가 될 수 없는 흔적이 없다.⁴⁵⁾

고 하였고, 黎錦熙와 周遲明은 개사와 連詞를 하나의 詞類로 보고 關係詞라고 하였다⁴⁶⁾. 그러나 개사와 連詞는 다음과 같은 의미 및 통사적 기능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개사 ‘以’와 연사 ‘以’의 차이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連詞 ‘以’는 문법 성분을 연결하여 문장성분을 이룰 수 없다. 그러나 개사 ‘以는’ 뒤에 오는 명사와 강한 의미관계에 의해 연결되어 문장성분을 이룬다. 連詞는 동일 형태라고 볼 수 있는 문법성분들 사이에서 그들을 연결시켜 줄 뿐 문장성분이 되지는 못한다.

둘째, 連詞 ‘以’는 문장 속에서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빈어를 수반할 수 없고, 다른 어떤 성분의 수식도 받지 않는다. 반면 개사 ‘以’는 문장중의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고 빈어를 수반하며, 대체로 기타성분(조동사, 부사 등)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連詞 ‘以’는 동사 형용사 등 用言成分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고 修飾成分과 中心語를 연결시킬 수 있지만, 개사 ‘以’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⁴⁷⁾

연사는 그 이루어진 구조와 연사가 지니고 있는 기능 여하에 따라 여러 가지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주관적인 시각여하에 따라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쾌한 구분은 용이하지 않다. 연사는 의미기능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어주는 병렬관계와 중심이 되는 부분과 종속

45) 한학중, 「漢語文言의 介詞 研究: 『孟子』를 中心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13쪽.

46) 黎錦熙, 《新著國語文法》, 臺北, 商務印書館, 民國67, 6쪽.

47) 여병창, 「3部 經典중의 ‘以’자 용법 비교 연구 - 『論語』, 『孟子』, 『荀子』」, 『中國文學研究』, 제33집, 2006, 393~394쪽.

이 되는 부분을 이어주는 주종관계로 구분되는데, 병렬관계의 연사는 다시 대등·승접·역접·선택 관계로 나누고, 종속관계의 연사는 가정·양보·인과·역양관계로 나눈다.⁴⁸⁾ 이 중에서 ‘以’는 연사의 기능 중 대등관계와 승접관계를 종속관계의 연사 가운데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3. 『論語』와 『孟子』에 나타난 ‘以’의 쓰임

1) 介詞

(1) 道具介詞

개사의 빈어로 술어의 동작 행위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휴대물 또는 의지물로 의거한 수단, 방식, 신분, 명분 등을 동반한 경우이다.⁴⁹⁾ 술어의 행위동작과 관련하여 갖는 개사빈어의 의미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도구(道具)’와 추상적인 의미를 갖는 ‘수단(手段)’,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자격(資格)’으로 세분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道具

도구개사는 행위·동작의 도구를 나타내는 개사로, ‘以+명사류’의 구조를 가진다. 개사의 빈어로 술어의 동작행위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체물로 사물과 사람을 나타낸다.⁵⁰⁾ 우리말로 대개 ‘~로, ~

48) 김용걸, 『한문해석방법』, 교학사, 2004, 232~241쪽.

49) 정순영, 『三國遺事의 虛詞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101쪽.

로써'로 풀이한다.⁵¹⁾

① 君子不以紺纁飾 (『論語』, 「鄉黨」 6章)

[풀이] 군자는 감색과 검푸른 회색으로 테를 두르지 않는다.

② 桓公九合諸侯不以兵車 (『論語』, 「憲問」 17章)

[풀이] 환공이 여러 차례 제후들을 규합하되, 兵車를 쓰지 않았다.

③ 以羊易之 (『孟子』, 「梁惠王」上 7章)

[풀이] 양으로 바꾸어라!

④ 湯使人以幣聘之 (『孟子』, 「萬章」上 7章)

[풀이] 탕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물을 가지고 가서 이윤을 초빙하였다.

⑤ 以土之招招庶人 (『孟子』, 「萬章」上 7章)

[풀이] 선비를 부를 때 사용하는 기를 가지고 서인을 부른다.

⑥ 以一杯水救一車薪之火也 (『孟子』, 「盡心」上 18章)

[풀이] 한 잔의 물로 한 수레에 가득 실은 짚의 불을 끄다.

⑦ 子曰 以不教民戰 是謂棄之 (『論語』, 「子路」 30章)

[풀이] 아직 훈련받지 않은 백성을 전쟁에 나가게 하는 것은 생명을 유린하는 것과 같다.

도구개사는 ①~⑥의 예문처럼 ‘以’ 뒤에 ‘紺纁, 兵車, 羊, 幣, 土之招, 一杯水’와 같이 구체적인 사물이 결합된다. ⑦의 예문은 ‘아직 훈련받지 않은 백성’을 의미하는 빈어로 사람이 온 경우이다.

手段

50) 정순영, 『三國遺事의 虛詞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103쪽.

51) 개사의 빈어들은 원문과 풀이 모두 밑줄로 구분하였다.

개사의 빈어가 술어의 동작행위를 달성하기 위해 취하는 방도나 일정한 형식, 절차나 추상적 제도와 법도, 규범, 기술, 기교, 태도, 덕성, 예의 등을 나타낸다.⁵²⁾ 우리말로 '~에, ~에 의해, ~을 따라' 로 풀이할 수 있다.

① 富與貴，是人之所以欲也，不以其道得之。不處也。（『論語』，「里仁」5章）
[풀이] 돈을 많이 벌고, 높은 벼슬을 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 모두 바라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지 않는다면 (군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知和而和 不以禮節之（『論語』，「學而」12章）
[풀이] 합당한 것을 위해서 합당한 것을 구하고, 일정한 규율 제도로써 절제하지 않는다.

③ 爲政以德（『論語』，「爲政」1章）
[풀이] 도덕으로 나라의 정사를 다스리다.

④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論語』，「爲政」3章）
[풀이] 도덕으로써 그들을 인도하고, 禮敎로써 그들을 바로 잡으면, 백성들이 염치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인심이 돌아오게 된다.

⑤ 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論語』，「爲政」5章）
[풀이] (부모가) 살아계실 때에는, 정해진 예절로써 모시고, 돌아가시면 정해진 예절로써 장사지내며, 제사 드린다.

⑥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論語』，「八佾」19章）
[풀이] 임금은 마땅히 禮로써 신하를 부려야 할 것이며, 신하는 마땅히 충성스럽게 임금을 섬겨야 한다.

52) 임병권은 '수단과 방식을 구분한다면, 수단은 어떤 구체적이고 일회적인 행위이거나 적용 범위가 넓지 않은 특정의 기술(솜씨)·생각'이라는 성격을 지니며, 방식은 '일회적이고 구체적인 수단들이 지니는 형식의 공통점 그리고 그 수단들이 따르며 귀속하고 있는 제도·규범'이라고 하여 도구개사의 종속된 수단과 방식의 개사를 구분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수단과 방식을 모두 수단개사에 포함시켰다.

⑦ 舉一隅 不以三隅反 則不復也 (『論語』, 「述而」 8章)

[풀이] 그에게 동쪽을 알려주었는데, 서·남·북 세 방향을 미루어 알지 못하면, 다시 그를 가르치지 않는다.

⑧ 君子深造之以道 (『孟子』, 「離婁」下 14章)

[풀이] 군자가 깊이 나아가기를 道(방법)로써 하다.⁵³⁾

⑨ 我不忍以夫子之道 反害夫子 (『孟子』, 「離婁」下 22章)

[풀이] 나는 선생님의 가르치신 궁술로 도리어 선생님을 해칠 수 없다.

⑩ 以禮食則飢而死 (『孟子』, 「告子」下 1章)

[풀이] 禮대로 먹으면 굶어 죽는다.

⑪ 以直報怨 以德報德 (『論語』, 「憲問」 36章)

[풀이] 공평하고 정직함으로 원한을 갚고, 은혜로 은혜를 보답해야 한다.

①~⑪의 예문은 모두 개사의 빈어로 ‘道나 德, 禮, 直’과 같이 행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쓰인 덕성, 예의 등의 추상적인 행위가 온 경우이다. 『論語』와 『孟子』의 내용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仁과 禮와 같은 추상적인 의미를 갖는 덕목들이 언급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수단개사의 예가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을 나타내는 개사에 비해 비교적 많은 편이다.

⑫ 子以四教, 文·行·忠·信. (『論語』, 「述而」 25章)

[풀이] 공자는 다음 네 가지 내용으로 (학생들을)교육하였다. : 역대의 문헌, 사회생활에서의 실천, 다른 사람에 대한 충성, 사람과 교제 할 때의 믿음성.

⑬ 以文會友 以友輔仁. (『論語』, 「顏淵」 24章)

[풀이] 문장과 학문으로 벗을 모으고, 벗으로 자기의 인덕을 기르는데 돕

53) 성백효 譯註, 『論語集註』, (전통문화연구원, 2005), 237쪽의 풀이를 따름.

도록 한다.

⑫, ⑬번의 예문은 ‘以’의 빈어로 추상적인 행위나 기술로 ‘四教, 文, 友’의 수단을 나타내는 말이 쓰였다.

⑭ 以若所爲 求若所欲 (『孟子』, 「梁惠王」上 7章)
[풀이] 이와 같은 방법을 가지고 그와 같은 소원을 추구한다.

⑮ 不以堯之所以治民治民 (『孟子』, 離婁 上 2章)
[풀이] 요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던 태도와 방법으로 백성을 다스리지 않는다.

⑯ 君子不以其所以養人者害人 (『孟子』, 「梁惠王」下 15章)
[풀이] 군자는 사람을 기르는 것(토지)을 가지고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위의 ⑭~⑯은 ‘以’의 빈어로 술어의 동작행위를 달성하기 위한 일정한 ‘방법’으로 ‘若所爲, 堯之所以治民治民, 其所以養人者’와 같이 명사상당 어구가 빈어로 결합된 경우이다.

資格

개사의 빈어가 술어의 동작행위를 달성하기 위한 자신이나 상대방의 자격, 신분, 지위, 입장 등을 나타낸다.⁵⁴⁾ 역시 ‘以+명사류’의 구조를 가지며, 우리말로 ‘~로, ~로서’로 풀이할 수 있다.

① 若季氏則吾不能 以季孟之間 待之 (『論語』, 「微子」 3章)
[풀이] 季氏 같이는 내 능히 대우하지 못하겠거니와 季氏와 孟氏의 중간

54) 정순영, 『三國遺事の 虛詞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101쪽.

으로 대우하겠다.

春秋時代 魯나라의 權臣인 三家의 ‘지위’를 의미하므로, ①예문에 쓰인 ‘以’는 지위의 의미를 갖는 도구개사라고 할 수 있다.

② 以能問於不能 以多問於寡 (『論語』, 「泰伯」 5章)

[풀이] 능력이 있으면서도 무능한 사람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지식이 풍부하면서도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청하다.

‘以’의 빈어에 해당하는 ‘能’, ‘多’는 ‘능력이 있는 사람, 지식이 풍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가르침을 청한다.’ 로 보아 자격의 의미를 가지는 개사로 분류하였다.

③ 沈同以其私問 (『孟子』, 「公孫丑」下 8章)

[풀이] 심동이 개인의 신분으로 맹자에게 물었다.

④ 以君命將之 (『孟子』, 「萬章」上 6章)

[풀이] 군주의 명에 따라 예물을 보내다.

⑤ 以其宜召之也 (『孟子』, 「萬章」上 7章)

[풀이] 그 관직으로 부르다.

③~⑤의 예문도 마찬가지로 ‘以’의 빈어가 술어의 동작 행위를 달성하기 위한 ‘개인, 군주, 관직’의 신분으로 풀이할 수 있으므로, 예문에 쓰인 ‘以’를 자격개사로 볼 수 있다.

(2) 對象介詞

대상개사⁵⁵⁾는 행위·동작이 이루어지는 대상을 나타내는 개사이

55) 김용길은 『한문해석방법』, (교학사, 2004)에서 ‘대상개사’는 행위동작이 이

다. 대상개사는 ‘以+명사류’의 구조를 이루며, 우리말로 대개 ‘~을, 를’ 로 풀이할 수 있다.

① 三以天下讓 (『論語』, 「泰伯」 1章)

[풀이] 여러 차례 천하를 양보하였다.

② 孔子 以其兄之子妻之 (『論語』, 「先進」 5章)

[풀이] 공자께서 그 형의 딸을 그(南容)에게 시집보내었다.

③ 以其子 妻之 (『論語』, 「雍也」 1章)

[풀이] 자신의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었다.

④ 誦詩三百 授之以政不達 (『論語』, 「子路」 5章)

[풀이] 『詩經』 300편을 숙독하여도 그에게 정사를 맡겼을 때, 오히려 제 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⑤ 五畝之宅 樹之以桑 (『孟子』, 「梁惠王」上 3章)

[풀이] 다섯 이랑의 택지에다 뽕나무를 심다.

⑥ 王語暴以好樂 (『孟子』, 「梁惠王」下 1章)

[풀이] 왕이 暴에게 음악을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말하다.

⑦ 教人以善 謂之忠 (『孟子』, 「滕文公」上 4章)

[풀이] 착한 일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충성된 일이라 이르다.

⑧ 堯以天下與舜 有諸 (『孟子』, 「萬章」上 5章)

[풀이] 요임금이 천하를 순임금에게 주었다는 일이 있었는가?

⑨ 祿之以天下弗顧也 (『孟子』, 「萬章」上 7章)

[풀이] 천하의 봉록을 준다 하여도 돌아보지 않다.

⑩ 其自任以天下之重如此 (『孟子』, 「萬章」上 7章)

루어지는 대상을 나타내는 개사라고 정의하고, ‘대상개사’의 종류로 ‘乎’와 ‘於’ 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풀이] 그가 이와 같이 천하의 무거운 책임을 스스로 지었다.

①~⑩의 예문들을 살펴보면, 술어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대개 빈어를 2개 가지게 되는 술어들의 경우, 대상개사를 갖게 된다. 즉 수여동사나 불완전 타동사의 경우 대상개사의 의미를 갖는다. '~에게~을 주다, 양보하다, 가르치다'와 같은 형식을 가질 때 '以'는 대상개사가 된다.

(3) 原因介詞

원인개사는 행위 동작의 동기나 이유, 구실 등을 나타낸다. 우리말로 '~ 때문에, ~한 까닭에, ~해서' 등으로 풀이할 수 있다.

○ 以約失之者鮮矣 (『論語』, 「里仁」 23章)

[풀이] 約해서 실수하는 것은 드물다.⁵⁶⁾

○ 孔子辭以疾 (『論語』, 「陽化」 20章)

[풀이] 공자께서는 병을 핑계로 거절하였다.

○ 君子不以言舉人 不以人廢言 (『論語』, 「衛靈公」 22章)

[풀이] 군자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뽑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좋은 말까지 버리지 않는다.

○ 子夏子張子游 以有若似聖人 欲以所事 孔子 事之 彊曾子 (『孟子』, 「滕文公」上 4章)

[풀이] 자하, 자장, 자유가 유약이 성인(孔子)과 유사하다 하여, 공자를 섬기던 바의 禮로써 그를 섬기고자 해서 증자에게 강요하였다.⁵⁷⁾

56) 양백준은 '자신에 대해 절제하고 단속하고도 잘못을 범하는 것, 이런 일은 결코 많지 않을 것이다.' 성백효는 '約으로써 잃는 자가 적다.'고 하였으므로 '원인'의 뜻을 살려 '約해서'로 풀이하였다.

57) 성백효 譯註, 『論語集註』, (전통문화연구회, 2005), 161쪽의 풀이를 따름.

○ 以其郊於大國也 斧斤伐之 (『孟子』, 「萬章」下 8章)

[풀이] 대도시의 교외에 있었기 때문에 늘 도끼로 베다.

○ 柳下惠不以三公易其介 (『孟子』, 「盡心」上 28章)

[풀이] 유하혜는 높은 관리를 한다고 그의 절개를 바꾸지 않았다.

○ 梁惠王 以土地之故 糜爛其民而戰之 (『孟子』, 「盡心」下 1章)

[풀이] 양혜왕은 토지(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사랑하지 않는 백성을 전쟁터로 내몰아 그들의 시신을 썩게 하였다.

위의 예문과 같이 개사 ‘以’가 원인관계를 표시하는 경우 개사 빈어는 동사의 앞에 위치하는 것이 보편적인 용례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以’의 개사빈어가 동사의 뒤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다.

○ 昔者辭以病 今日吊 或者不可乎 (『孟子』, 「公孫丑」下 2章)

[풀이] 어제는 병이 있다는 핑계로 왕의 부름을 사양하시고, 오늘은 또 조문을 가려고 하시니, 아마도 그렇게 해서 안될 듯합니다.

○ 三代之得天下也以仁 (『孟子』, 「離婁」上 3章)

[풀이] (하·은·주 삼대가 천하를 얻은 것은 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4) 時間介詞

개사 ‘以’가 시간을 표시할 때 ‘以+명사류’의 구조를 이룬다. 이 때 단음절 자동사와 결합되어 보어로 쓰인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부사어로 쓰이는 것이 대부분이다.⁵⁸⁾ 우리말은 ‘~에, ~동안’으로 풀이할 수 있다.

『論語』에는 개사 ‘以’가 시간을 표시하는 용례가 1회 나오며, 『孟子』에는 4회 나온다.⁵⁹⁾

58) 한학중, 『漢語文言의 介詞 研究: 『孟子』를 中心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56쪽.

○ 節用而愛人 使民以時 (『論語』, 「學而」 5章)

[풀이] 비용을 절약하며, 관리를 아껴야 하고, 백성들을 때에 맞추어 부려야 한다.

○ 斧斤 以時入山林 (『孟子』, 「梁惠王」 上 3章)

[풀이] 나무를 벌목함에 제 때를 잘 지킨다.

○ 壯者以暇日 修其孝悌忠信 (『孟子』, 「梁惠王」 上 5章)

[풀이] 젊은 사람들이 한가할 때에는 효성과 공경과 충성과 신의의 도덕을 공부하게 하다.

○ 食之以時 用之以禮 財不可勝也 (『孟子』, 「盡心」 上 23章)

[풀이] 제 때에 먹고, 예에 맞게 쓰면, 재물을 이루 다 쓸 수 없을 것이다.

○ 犧牲既成 粢盛既潔 祭祀以時 (『孟子』, 「盡心」 下 14章)

[풀이] 희생이 이미 살이 찌고 제물이 이미 정결하여 제사를 제 때에 지낸다.

위와 같이 ‘以’가 시간을 표시할 때에는 개사빈어로 時, 年, 月, 日, 後와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며, 부사어로 쓰인다.

(5) 場所介詞

장소개사는 행위가 발생·진행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이것은 어조사 ‘於’와 같은 역할을 하며 우리말로 ‘~에, ~에서’로 풀이할 수 있다. 장소개사는 『論語』에 2회, 『孟子』에는 5개 어구가 보인다.

59) 임병권, 『『孟子』의 虛詞 ‘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에서는 ‘太甲 … 於桐處仁遷義三年 以聽伊尹之訓己也.’(『孟子』, 「萬章」 上 6)의 ‘以’도 시간을 나타내는 개사라고 인식하였다.

○ 公山弗擾以費畔 (『論語』, 「陽化」 5章)

[풀이] 공산불요씨가 費땅에 웅거하여 반역을 꾀하였다.

○ 佛盼以中牟畔 (『論語』, 「陽化」 7章)

[풀이] 필힐이 中牟에 웅거하여 반역을 꾀하였다.

○ 以於陵則居之 (『孟子』, 「滕文公」 下 11章)

[풀이] 於陵 땅 집에 살다.

위의 예문에는 以의 빈어로 費와 中牟, 於陵과 같이 구체적인 지명이 있는 장소가 위치하였다.

아래와 같이 『孟子』에 출현하는 또 다른 장소개사 빈어⁶⁰⁾로 ‘兄之室’이 쓰여 동작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를 나타내었다.

○ 以兄之室則弗居 (『孟子』, 「滕文公」 下 11章)

[풀이] 형의 집에는 살지 않다.

또한, 구체적인 지명이나 장소를 제외하고도 심리적인 장소까지도 장소로 취급하여 도구개사로 볼 수 있는 仁을 장소개사로 볼 수 있다.⁶¹⁾

○ 君子以仁存心 以禮存心 (『孟子』, 「離婁」 下 28章)

[풀이] 君子는 仁으로 마음을 보존하고, 禮로 마음을 보존한다.

60) 임병권은 『孟子』, 「滕文公」 上 2章의 “然 不可以他求者也”에서의 ‘以’도 장소개사로 분류하였다. 성백효(『孟子集註』 142쪽)는 “그러하겠다. 다른 것을 가지고 찾을 것이 없다.”와 같이 수단개사의 의미로 풀이하였으며, 양백준(『孟子譯註』 165쪽)은 “그럴 거요. 이는 다른 사람에게서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로 풀이하었다. 분고에서는 위와 같은 풀이에 의거하여 『滕文公』 上 2章의 개사 ‘以’를 장소개사로 분류하지 않았다.

61) 임병권, 『孟子』의 虛詞 ‘以’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125쪽.

○ 君子以仁存心 以禮存心 (『孟子』, 「離婁」下 28章)
[풀이] 君子는 仁으로 마음을 보존하고, 禮로 마음을 보존한다.

위의 두 예문에서 仁은 마음을 보존할 수 있는 심리적인 장소의 의미를 가진다.

2) 連詞

(1) 對等關係

대등관계의 연사는 선행구(절)와 후행구(절)를 대등하게 연결하는데 쓰이는 연사다. ‘以’의 연사로서의 용법은 ‘而’와 ‘與’, 그리고 ‘以上’, ‘以來’ 등에 의해 설명된다. ‘以’가 접속사 ‘與’와 같다고 말하는 것은 명사와 명사 또는 형용사와 형용사의 대등한 관계의 단어와 구, 문장 등을 이어주는 경우이다.

○ 使民敬忠以勸, 如之何? (『論語』, 「爲政」 20章)
[풀이] 백성으로 하여금 윗사람을 공경하고 충성하게 하며, 이것을 권면하게 하려는데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위와 같은 대등관계의 연사 용례는 『論語』에 단 1회만 보이며, 『孟子』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2) 承接關係

승접관계의 연사는 선행구(절)와 후행구(절)를 연속적 또는 동시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⁶²⁾ ‘而’, ‘然後’, ‘遂’ 등에 의해 설명할

62) 김용걸, 『한문해석방법』, 교학사, 2004, 3쪽.

수 있다. 연사 ‘而’와 ‘以’의 차이는 ‘以’는 순접만이 가능하고⁶³⁾, 전절이 불가능한 점, 병렬관계의 표시가 매우 적은 점이 ‘而’와 다르다.

또한 『論語』와 『孟子』에는 ‘而’의 앞에 동사, 부사, 형용사, 대명사, 수량사, 명사 등 많은 종류의 품사들이 위치하거나 개사어구와 명사구 혹은 문장이 오는 용례들이 보였다. 그러나 ‘以’의 전 항목에는 동사가 위치한 용례가 가장 많았고 수량사나 명사, 개사어구가 전 항목에 놓이고, 동사가 위치하는 용례가 2~3회씩 보인다.⁶⁴⁾ 이는 ‘以’가 ‘而’보다는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 回也 聞一以知十 賜也 聞一以知二 (『論語』, 「公治長」 8章)

[풀이]回的 한 가지 일을 들으면 열 가지 일을 미루어 알지만, 賜는 한 가지 일을 들으면, 겨우 두 가지 일을 미루어 압니다.

○ 居敬而行簡 以臨其民 不亦可乎 (『論語』, 「雍也」 1章)

[풀이] 자신이 敬에 처해있으면서 간략함을 행하여 人民을 대한다면 역시 可하지 않겠는가?⁶⁵⁾

○ 發憤忘食 樂以忘憂 (『論語』, 「述而」 18章)

[풀이] 열심히 공부하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즐거우면 걱정도 잊어버린다.

○ 我非生而知之者 好古敏以求之者也 (『論語』, 「述而」 19章)

[풀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고대의 문화를 애호하고, 민첩하게 그것을 구하여 얻은 사람이다.

○ 人潔己以進 與其潔也 (『論語』, 「述而」 28章)

63) 류중목은 『논어의 문법적 이해』(문학과 지성사, 2002)에서 『論語』, 「泰伯」 20章 ‘以服事殷’을 ‘그러면서도 은나라를 섬기다’로 풀이하어 ‘以’를 ‘而’와 같이 역접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로 보았다.

64) 임병권, 『『孟子』의 虛詞 ‘以’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學校 석사학위, 1987, 125~127쪽.

65) 성백효 譯註, 『論語集註』, (전통문화연구원, 2005), 105쪽의 풀이를 따름.

[풀이] 사람이 스스로를 깨끗이 하여 나간다면 마땅히 그의 깨끗함을 찬성한다.

○ 子誦以正 孰敢不正 (『論語』, 「顏淵」 17章)

[풀이] 당신이 솔선하여 바르게 하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습니까?

○ 如殺無道 以就有道 (『論語』, 「顏淵」 19章)

[풀이] 만약 나쁜 사람을 죽이고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어떠한가?

○ 一朝之忿 忘其身 以及其親 (『論語』, 「顏淵」 21章)

[풀이] 우연한 분노 때문에 자기를 잊고,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잊어버리게 된다.

○ 吾嘗終日不食 終夜不寢以思 (『論語』, 「衛靈公」 30章)

[풀이] 내 일찍이 온 종일 먹지 않고, 밤새도록 잠자지 않고 생각하였다.

○ 志士仁人 無求生以害仁 有殺身以成仁 (『論語』, 「衛靈公」 8章)

[풀이] 志士와 仁人은 삶을 구하여 仁 을 해침이 없고, 몸을 죽여 仁 을 이루는 경우는 있다.⁶⁶⁾

○ 隱居以求其志 行義以達其道 (『論語』, 「季氏」 11章)

[풀이] 숨어살면서 그 뜻을 구하고, 의를 행하며 그 道를 행한다.⁶⁷⁾

○ 譬諸草木 區以別矣 (『論語』, 「子長」 12章)

[풀이] (학문은) 초목과 같아서 각각의 구별이 있다.

○ 挾太山以超北海 (『孟子』, 「梁惠王」上 7章)

[풀이] 태산을 거드랑이에 끼고 북해를 뛰어 넘다.

○ 請損之 月攘一鷄 以待來年然後已 (『孟子』, 「滕文公」下 8章)

[풀이] 조금씩 줄여서 우선 매월 한 마리씩만 훔치다가, 내년이 된 후에 그만두겠소.

○ 苟不志於仁 終身憂辱 以陷於死亡 (『孟子』, 「離婁」上 9章)

66) 성백효 譯註, 『論語集註』, (진통문화연구원, 2005), 310쪽의 풀이를 따름.

67) 上揭書, 336쪽의 풀이를 따름.

[풀이] 만일(평상시에)어진정치에 뜻을 두지 않는다면, 중신토록 근심과 모욕을 면치 못하다가 죽음의 구덩이로 빠지고 말 것이다.

위의 용례들은 모두 '以'의 전후 항목에 동사가 위치한 경우로, 『論語』와 『孟子』에서 승접관계의 연사 역할을 담당하는 용례 중 가장 많은 횟수를 차지한다.

다음 문장은 각각 '以'의 앞에 수사, 명사, 개사어구가 위치한 용례이다.

- 從者數百人 以傳食於諸侯 (『孟子』, 「滕文公」下 4章)
[풀이] 추종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며 가는 곳마다 제후들의 향연을 받는다.
- 其小人簞食壺漿 以迎其小人 『孟子』, 「滕文公」下 5章)
[풀이] (은나라의) 백성들도 대그릇에 밥을 담고 병에 술과 국을 가득 넣어가지고 와서 (주나라의) 백성들을 영접하다.
- 由是以樂堯舜之道哉 (『孟子』, 「萬章」上 7章)
[풀이] 이로 말미암아서 요순의 도를 즐거워하다.

(3) 因果關係

인과관계의 연사는 선행구(절)와 후행구(절)을 원인과 결과로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연사 '以'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외에도, '以'와 '故' 혹은 '所', '是' 등의 허사와 결합하여 '以~故'·'故~以'·'是以'의 형태로 단어와 구, 문장 등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論語』와 『孟子』에는 '以'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와 '是以'의 형태의 연사가 쓰였다.

- 以吾一日長乎爾 毋吾以也 (『論語』, 「先進」 25章)
[풀이] 내가 너희들보다 나이가 많아(늙어서),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느니라.

○ 以吾從大夫之後 不可徒行也 (『論語』, 「先進」 7章)

[풀이] 내가 일찍이 대부를 지냈던 까닭에 걸어서 다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 以吾從大夫之後 不敢不告也 (『論語』, 「憲問」 22章)

[풀이] 내가 대부를 지낸 적이 있어서 감히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 君子所以異於人者 以其存心也 (『孟子』, 「離婁」 下 28章)

[풀이] 군자가 보통사람과 다른 까닭은 자기의 마음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 我故 曰告子未嘗知義 以其外之也 (『孟子』, 「公孫丑」 上 2章)

[풀이] 나는 그래서 고자는 일찍이 義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한 것이니, 그는 義를 마음밖에 있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위의 문장들은 ‘以’가 단독으로 쓰여 인과관계의 기능을 나타낸 용례이다. 이처럼 ‘以’의 앞과 뒤에 원인과 결과가 놓인 경우에는 ‘以’의 후행은 주어와 술어를 갖춘 절이 위치한다.

다음은 ‘是以’가 선행구와 후행구 혹은 선행절과 후행절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나타낸 경우이다.

○ 敏而好學 不恥下問 是以謂之文也 (『論語』, 「公冶長」 15章)

[풀이] 민첩하며, 학문을 좋아하며, 또 겸허하게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文’자를 써서 그의 시호를 지었다.

○ 子夏曰 雖小道 必有可觀者焉 致遠恐泥 是以君子不爲也 (『論語』, 「子張」 4章)

[풀이] 비록 작은 기예라 할지라도 반드시 취할 만한 곳이 있을 것이나, 그것이 원대한 사업을 헤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군자는 그것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다.

○ 子貢曰 紂之不善 不如是之甚也 是以君子惡居下流 天下之惡皆歸焉 (『論語』, 「子張」 20章)

[풀이] 商나라 紂왕의 나쁨이 오늘날 전해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하류에 처하는 것을 증오하는 것이다. 일단 하류에 처하게 되면, 천하의 모든 나쁜 명성이 그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 仲尼之道 無道桓文之事者 是以後世無傳焉 (『孟子』, 「梁惠王」上 7章)
[풀이] 공자의 무리들은 제 환공과 진 문공의 일을 이야기한 사람이 없는데, 이 때문에 후세에 전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4) 其他

연사 ‘以’의 기능 중 명확히 분석할 수 없는 특수한 용례로 ‘往·來·上·下·內·外·東·西’ 등을 붙이는 예가 설명된다.⁶⁸⁾ 『論語』에서는 2개의 어구에 ‘以上’의 연사가 1개의 어구에 ‘以下’가 쓰였고, 『孟子』에서는 ‘以下’ 1회, ‘以來’는 같은 내용의 어구가 3회 반복되어 쓰였다.

○ 子曰 中人以上 可以語上也 中人以下 不可以語上也 (『論語』, 「雍也」 21章)

[풀이] 보통 수준이**상**인 사람에게는 높고 깊은 학문을 말해 줄 수 있다. 보통 수준이**하**의 사람에게는 높고 깊은 학문을 말해서는 안 된다.

○ 自行束脩**以上** 吾未嘗無誨焉 (『論語』, 「述而」 7章)

[풀이] 자발적으로 나에게 脯 한 **束이상**을 가지고 찾아 온 사람은 내가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다.⁶⁹⁾

○ 卿**以下** 必有圭田 (『孟子』, 「滕文公」上 3章)

[풀이] 공경이**하**의 관리들은 반드시 (선조의 제사비용으로 쓸 수 있는) 圭田을 주다.

○ 自生民**以來** 未有夫子也 (『孟子』, 「公孫丑」上 2章)

68) 임병권, 「『孟子』의 虛詞 ‘以’에 관한 研究」, 成均館大學校 碩士學位, 1987, 123~124쪽.

69) 성백효 譯註, 『論語集註』, (전통문화연구회, 2005), 130쪽의 풀이를 따름.

[풀이] 인류가 있는 이래로 선생님에게 미칠수 있는 분은 있지않다.

○ 自生民以來 未有盛乎孔子也 (『孟子』, 「公孫丑」上 2章)

[풀이] 인류가 있는 이래로 공자보다 더 훌륭하신 분은 계시지 않다.

○ 自生民以來 未有能濟者也 (『孟子』, 「公孫丑」上 5章)

[풀이] 백성이 있는 이래로부터 이러한 일은 성공할 수가 없었다.

Ⅲ. 학교문법에서 ‘以’의 쓰임

1. 학교문법에서 ‘以’의 정의

1) 학교문법의 정의

학교문법에 대해서 정우상은 문법의 用述내지는 목표 면으로 본 실용문법 또는 규범문법으로 교육을 전제로 한 문법으로, 개별언어의 문법적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설명하는 기술문법, 구조문법, 변형문법 등 일반문법과는 대립되는 말로 정의하였다.⁷⁰⁾ 한문의 學校文法은 이론적이고 과학적인 일반문법을 근간으로 한문문장의 구조나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학교의 학생들이 한문문장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송병렬⁷¹⁾도 學校文法은 문법연구를 위한 문법이 아닌 학습을 돕기 위한 문법이라고 정의하였다.

학교문법의 정의에 대한 부연설명을 위해서 과거의 한문교육에 대한 정의를 빌릴 수 있다. 제5차 한문 교육과정에서는 한문교육을 ‘일상생활에서 비계획적이고 비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한문교육과 ‘학교교육을 통하는’ 한문교육으로 나누었다. 그렇다면 학교문법이란 한문교육에 대한 정의 중 후자에 해당할 것이다. 덧붙이자면 5차 교육과정의 한문교육에 대한 외적규정⁷²⁾인

①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고시된 교육과정령 중 ‘한문과’의 교육과

70) 이근선·김성중, 『한문과 문법론』, 보고사, 2012, 36~38쪽.

71) 송병렬, 「교과서 한문 문법에 대한 재고」, 『한문교육연구』, 한국한문교육학회, 제10호, 1996, 211쪽.

72) 문교부, 『고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 해설』, 1988.

정에 따라

- ② 일정한 자격이 인정된 전문가인 한문교사가
- ③ 학교교육의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위와 같은 학교교육으로 규정지은 한문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상의 한문문법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한문문법을 설명하는 연구 분야인 학교문법연구는 학교에서 ‘한문과’의 교육과정을 따라 학교교사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한문학습을 돕는 목적을 가진 문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문교과는 독립교과가 된 이후 어느 덧 30여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學校文法 통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다만, 교육과정을 개편할 때 마다 교과서 편찬의 기본 지침이라 할 수 있는 『교육부 고시에 따른 한문과 교육과정 해설』에 한문문법과 관련한 사항을 제시하였는데,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이것을 반영하여 한문 교과서를 제작한다. 한문교과서는 학교교육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며, 한문과에 대한 표준저작물이다. 그리고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중심역할을 하는 도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 고시에 따른 한문과 교육과정 해설』에 따라 제작된 한문교과서가 學校文法の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문과 교육과정 해설』에 실린 문법사항은 학계의 衆智를 모아 도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⁷³⁾ 한문교과과정의 한문문법에 대한 인식이나 체계적인 분류·정리는 아

73) 이군선·김성중, 『한문과 문법론』, 보고사, 2012, 104~105쪽.

73) 上揭書, 50~51쪽.

직 미흡한 것이 많다. 동일한 문장을 여러 가지 다른 문장형식으로 분류하고 있는가 하면, 마땅히 구별되어 사용해야 할 문법적 범주들이 뒤섞여 처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학문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모순일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차원에서도 교사나 학생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한문과 문법은 규범성과 일관성을 필요로 한다. 한문 문법안이 통일되지 않는다면 학교교육에서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각종 시험에서 한문문법과 관련한 시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학교문법에서 ‘以’의 정의

학교교육의 기초교재는 단연 교과서로 이루어진다. 또한 교과서의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해설서의 내용을 근간으로 한다. 하여 학교문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해설서에 제시된 내용체계와 이를 근간으로 제작되어 학교의 현장교육에 사용되는 교과서의 문법내용을 분석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문과 학교문법의 내용 중 허사 ‘以’를 다루고 있는 내용을 최근 20년 이내의 교육과정인 제 5차 한문과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부터 현행교육과정인 2007교육과정 해설서에 설명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교육과정해설서의 내용을 근간으로 일선학교에서 실제 한문교육의 기본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에서 ‘以’의 정의와 쓰임에 대한 내용과 예문들을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論語』와 『孟子』의 예문을 교과서에서 찾아 학교문법의 허사‘以’의 의미와 쓰임을 설명하고, 일반문법에서의 설명과 비교하였다.

『제5차 漢文科 교육과정 해설서』⁷⁴⁾에서는 한자, 한자어, 한문의 각

영역에서 지도해야 할 하위 목표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 중 허사에 대한 설명은 ‘한문’ 영역 지도 내용에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허자(虛字)의 명칭을 따랐으며 구실에 따라 나눈 분류인 전치사, 접속사, 어기사 중 전치사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5차 교육과정에 명시된 허자(虛字)는 ‘단어와 단어, 어구와 어구의 관계를 명료하게 하고, 문의 어기(語氣)를 조화하며 그 뜻을 돕는 구실을 하는 글자로서 주로 문법적인 직능을 갖는다’고 하였다.

전치사로 분류한 ‘以’의 정의에 대해 ‘以’는 명사류와 결합되는 전치사이며 ‘以+명사류’는 주로 서술어 앞에 자리하여 그 서술어를 한정하는 부사어⁷⁵⁾가 된다고 하였다.

‘以’는 도구, 자료, 방법, 원인, 이유, 근거, 시간, 목적, 자격 등을 나타내며, ‘~으로써’, ‘~을 가지고’, ‘~에 의하여’, ‘~로 인하여’, ‘~ 때문에’, ‘~을 위하여’, ‘~으로서’, ‘~에’, ‘~을(를)’등으로 해석된다. 또한 ‘以’의 의미역할에 따른 분류로 ‘동반, 술령, 목적어를 이끄는 목적어를 서술어 앞으로 이끄는’ 등을 예시를 통해 추가설명하고 있다.

또한 참고사항으로 ‘以+명사류’어순에서 명사류가 강조되어야 할 때 ‘명사류+以’의 어순이 된다는 점과 ‘以A爲B’, ‘以爲B’의 용법, ‘以’의 명사류가 도치된 경우와 ‘以’의 접속사의 쓰임에 대해 부연하여 설명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 해설서』⁷⁶⁾에서도 한자, 한자어, 한문의 내용영역 체계를 갖추어 ‘한문’의 내용영역에서 ‘허자(虛字)의 쓰임과 구실알기’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5차 교육과정 해설과 마찬가지로 ‘허자(虛字)의 명칭을 따랐다.

74) 문교부, 『고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 해설』, 1988.

75) ‘以’가 목적어를 이끌 때는 목적어이다.

76) 교육부, 『고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 해설』, 1992.

6차 교육과정에서는 ‘허자(虛字)’는 실질적인 말을 나타내는 말과 대조적으로 단어와 단어, 구(句)와 구(句), 절(節)과 절(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문의 어기를 조절하는 등 주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글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허사에 속하는 품사는 전치사, 접속사, 어기사, 감탄사로 나누었다.

특히 ‘以’의 정의는 5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以+명사류’의 구조로 주로 서술어 앞에 위치하여 서술어를 한정하는 부사어 구실을 하며 다만, ‘~으로서, ~을 가지고, ~에 의하여, ~ 때문에, ~에, ~으로서, ~에 따라서, ~을 거느리다’ 등의 뜻으로 쓰이며, ‘도구, 자료, 방법, 원인, 시간, 자격, 표준, 동반’의 의미역할로 나누었다.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以’의 접속사의 쓰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5차 교육과정내용과 동일하다.

『제7차 교육과정 해설서』⁷⁷⁾에서도 ‘한문’의 내용영역에서 ‘허자의 쓰임을 알고 문장풀이에 활용하기’라는 내용으로 허자(虛字)에 대해 동일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以’의 정의 및 의미역할도 동일하지만, 5차와 6차에 제시된 참고내용이 삭제되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전 교육과정의 내용영역 체계와는 다르게 한문의 학문적 성격과 언어적 특질을 고려하여 ‘한문’과 ‘한문지식’으로 나뉘었다. 더불어 한문의 문법적 요소들은 ‘한문지식’의 영역 안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본고의 연구대상인 허사에 대한 설명은 ‘한문지식’의 중영역인 ‘어휘’에서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알기’의 내용을 가지고 다루고 있다. 이전 교육과정 해설서와 내용적 측면에서 큰 차이점은 없으나 허자(虛字)에서 허사(虛辭)로, 허사의 하위품사인 전치사를 개사로, 어기사를 어조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77) 교육부, 『고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 해설』, 1997.

점이 다르다.

『2007 교육과정 해설서-(13) 한문』 78)에 명시된 ‘허사’는 어휘적 의미가 없거나 그다지 실재적이지 않고, 실사에 붙어서 단지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단어를 의미한다. 허사는 그 주된 기능이 문장 안에서 문법적인 기능이므로 기본적으로 문장에서의 쓰임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한다. 허사에 속하는 품사는 개사·접속사·어조사·감탄사로 분류하고 있다.

허사를 연구하기 위해 본고에서 문법의 기준으로 설정한 ‘學校文法’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여 허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사(介詞)

일반적으로 명사나 대명사 등 명사류(名詞類) 앞에 놓여 그 명사류를 서술어와 연결해 주면서 처소, 대상, 도구, 시간, 원인, 비교 등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명사류와 어울려 ‘개사+빈어’의 구조를 이루어, 보통 서술어의 뒤에서 서술어를 보충하거나 서술어의 앞에서 서술어를 수식·한정하는 구실을 한다.

(가) 於(于, 乎)

(나) 以

(다) 自, 由, 從

(2) 접속사(接續詞)

단어와 단어, 어구와 어구, 문장과 문장 등을 서로 이어주는 구실을 한다.

(가) 以

(나) 而

(다) 且, 與

(라) 則

(3) 어조사(語助詞)

78)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3)한문』, 2007.

단어나 어구 또는 문장의 앞, 가운데나 뒤에 와서 문법적인 의미나 어기(語氣)등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 (가) 也, 矣
- (나) 耳, 已, 而已
- (다) 乎, 哉
- (라) 哉, 矣
- (마) 之
- (바) 者
- (사) 所

(4) 감탄사(感歎詞)

문장의 밖에 독립적으로 놓여 화자(話者)의 부름, 느낌, 놀람이나 응답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위와 같이 5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07년 교육과정해설서에서 정리하고 있는 허사와 ‘以’의 정의 및 쓰임을 정리해보면 내용면에서 실사와 허사(혹은 허자)를 분류하는 기준과 허사의 의미는 모두 동일하다. 또한 허사의 하위 품사로 분류되는 개사(혹은 전치사), 접속사, 어조사(혹은 어기사), 감탄사도 마찬가지로 ‘以’의 주된 기능도 개사와 접속사로 일치되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정리된 내용을 기준으로 볼 때,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허사 ‘以’의 주된 기능은 ‘개사’와 ‘접속사’임을 알 수 있다.

다음 <표4>에서 <표7>까지는 중학교 8종, 고등학교 5종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以’의 의미와 기능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한 예문을 출판사 별로 정리 한 것이다. 예문으로 『論語』와 『孟子』의 원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표4> 중학교 1학년 교과서 분석

출판사	이의 쓰임 설명 및 풀이	교과서 본문	페이지
금성	以:~으로써	以恕己之心으로 恕人하라.	94~95
다락원	개사(介詞) : 명사나 대명사 등 명사류 (名詞類)앞에 놓여 그 명사류를 서술어와 연결해주면서 장소, 대상, 도구, 시간, 원인 비교 등의 뜻을 나타내는 품사이다.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고 단독적으로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 以 : 도구의 뜻을 나타낸 개사	以五十步, 笑百步, 則 何如?	56~57
대교	허사 : 실질적 의미는 별로 없으면서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 以 : ~로써.	以文會友	40~41
더텍스트	없음.		
동화사	없음.		
민중서림	[그것(백미)으로써]	良眉中有白毛, 故以稱之	84~85
비유와상징	[하늘이 복으로써 갚는다.]	有陰德者는 天報以福이라.	96~97
지학사(김)	以爲: '~으로 삼다' [세워서 (받들어) 임금으로 삼다.]	國人이 立以爲君하고	78~81

<표5> 중학교 2학년 교과서 분석

출판사	이의 쓰임 설명 및 풀이	교과서 본문	페이지
금성	所以 : ~하는 것 [천지가 온갖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	天地之所以生萬物	14~15
	可以 : ~ 할 수 있다. [모두 묘사하여 얻을 수 있다.]	皆可以描得	32~33
	以A爲B : A를 B로 삼다. 可以 : ~할 수 있다.	以古爲鏡하면 可以知興替요	36~37
	以爲 : ~라고 하다. ~라고 여기다. [온 천하에서 명절이라고 한다.]	通天下以爲名辰이라.	62~63
다락원	개사 以 : 주로 명사류 앞에서 도구, 수단, 자격, 대상, 원인 등을 나타낸다.	不以其道得之, 不處也.	20~21
	[이것으로 공을 거둔 것이 매우 많았다.]	以此, 收功者深夥.	44~45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으나 봉양할 수 없었다.]	定省不離左右나 而無以爲養	64~65
대교	以 : ~로써 [오십보 간 것으로써 백 보 간 것을 비웃는다면 어떠합니까?]	以五十步로 笑百步면 則何如하니잇고?	24~25
	以 : ~하여(그것으로써) [내 어르신을 공경하여 그 마음을 미루어 남의 어르신에게까지 미치고, 내 어린아이를 보살피 그 마음을 미루어 남의 어린아이에게까지 미치게 하라.]	老吾老하여 以及人之老하고, 幼吾幼하여 以及人之幼하라.	44~45
	所以 : ~한 까닭 以 : ~로써 [나라에서 사관을 중요하게 생각한 까닭은 한때의 얻고 잃음을 기록함으로써 만세의 시비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國家所以重史官은 以記一時之得失로 以待萬世之是非니라.	64~65
	所以 : ~한 까닭 [강과바다가 여러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낮추기를 잘하기 때문이다.] 以A爲B : A를 B로 여기다.	江海所以能爲百谷王者는 以其善下之니라. 鮑叔이 不以我爲貪하니 知我貪也라.	92~93 96~97
더텍스트	以: '~때문이다'로 풀이하며, '~로써'라는 뜻으로 풀이하기도 한다.[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오륜이 있기 때문이다.] 예) 以熱治熱	所貴乎人者는 以其有五倫也니라.	20~21
	以~爲...: '~(을)를...(으)로여기다.' [공경을 근본으로 여기다. 몸을 닦고 행동을 삼감을 우선으로 여기다.]	以恭敬爲本, 以修身慎行爲善	28~29
동화사	可以 : ~할 수 있다. [대왕이 그것을 듣고 승정원으로 불러와서 시로써 시험했다.]	他山之石이라도 可以攻玉이라. 大王聞之, 召致承政院하여 試以詩하다.	28~29 64~65
	以~爲- : ~을-라고 여기다. / 以爲 : ~라고 여기다.	子以我爲不信 / 虎以爲然	68~69
	是以 : 이 때문에	是以로 泣하나이다.	104~105
	[처음 배우는 사람은 먼저 모름지기 뜻을 세우되, 반드시 성인이 되는 것을 스스로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初學, 先須立志, 必以聖人自期	8~10
민중서림	以 : ~로써 [하늘이 복으로써 갚는다.]	有陰德者, 天報以福	40~43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써 자신을 꾸짖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써 남을 용서하라.]	以責人之心으로 責己하고, 以恕己之心으로 恕人하라.	48~49
	[친구나 나이 어린 사람을 만나면, 과거급제와 관직진출, 아들 낳기, 재물 얻기 등의 말로써 덕담을 하다.]	逢親舊年少하면 以登科進官生男獲財等語로 爲德談하여 以相賀하니라.	66~67
	[노인의 걸음으로 후생을 경계하노라]	以老人行戒後生	78~79
비상교육	['송'과 '석'은 그가 사는 곳으로써 이름을 지은 것이다.]	松石은 以其居名之요.	92~93

	[오십걸음으로써 백걸음을 비웃는다면 어떠한가?]	以五十步로 笑百步면 則何如하니잇고?	96~97
지학사(김)	以A爲B: A를 B로 삼다.	衣以新爲好하고, 人以舊爲好니라.	50~53
	[이 때문에 늘 부족하다고 한다.]	是以長不足이라.	62~63
	以 : ~하여, 단어와 단어를 서로 이어주는 '접속사' / 以 : ~ 때문이다., 원인을 나타내는 '개사'	醉飽以樂之라. / 以其新穀已登하고 西成不遠이라.	94~96
	[화랑이라 부르고 그를 받들다.]	名花郎以奉之	98~100

<표6> 중학교 3학년 교과서 분석

출판사	이의 쓰임 설명	교과서 본문	페이지수
금성	以~爲... : ~을...라고 여기다.	以教女子讀書爲太忌	58~59
다락원	可以 : ~ 할 수 있다.	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	40~41
	[나이 칠십 이상 된 분을 초청하여 경치 좋은 곳에 모여 그분들을 위로하였는데 이름을 청춘경로회라 하였다.]	靑年七十以上 하여 會于勝地하고 以慰之하니 名曰 靑春敬老會라하다.	64~65
	[만덕은 십분의 일을 가져 친족을 살리다]	萬德, 取十之一, 以活親族,	80~81
	[날씨가 추워지기전에도 한결같이 소나무·잣나무 이고, 날씨가 추워진 후에도 한 결 같이 소나무·잣나무 이다.]	歲寒以前, 一松柏也. 歲寒以後, 一松柏也.	104~105
대교	以~爲... : ~을...로 삼다 여기다. [경기도를 중앙으로 삼다.]	以京畿道로 爲中央하고	56~57
	[신은 죽음으로써 나라에 보답하겠습니다.]	臣以死報國	96~97
더텍스트	[만드시 성현의 언행으로]	必以聖賢言行으로 體之心이라.	28~29
	[또한 장차 내 나라를 이롭게 함이 있겠습니까?]	亦將有以利吾國乎	36~37
	不可以 : ~할 수 없다. [배움은 그만둘 수가 없다.] 可以 : ~할 수 있다.	學은 不可以已라.	40~41
	[그 때문에 동쪽으로 옮겨 간다.]	以故로 東徙라.	52~53
	以爲 : ~라고 여기다 ~라 생각하다. [호랑이라 여겨 그것을 쏘았다.]	以爲虎而射之	56~57
동화사	[문제가 일찍이 조식을 해치고자 하였으나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文帝가 嘗欲害植이나以其無罪어늘	12~13
	以 : ~로써 [어진사람은 재물로써 몸을 일으킨다.]	仁者 以身發身	44~45
	以爲~ : ~라고 여기다.	萬德이 取十之一하여 以活親族하고 ... 咸以爲活我者萬德이라하다.	88~89
	[스승이란 도를 전하고 학업을 가르쳐 주고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다.]	師者는 所以傳道·受業·解惑也라.	96~97
민중서림	以 : ~으로 [귀로 (그것을) 듣지 마고, 마음으로 I(그것을) 들어라.]	無聽之以耳, 而聽之以心	28~30
	[무엇으로 과녁을 맞히겠는가?]	何以中的	36~38
비유와상징	[몸을 세우는 것은 학문에 힘쓰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학문에 힘쓰는 것은 책을 읽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立身은 以力學爲先이요. 力學은 以讀書爲本이니라.	14~15
	[스승과 제자사이엔 더욱 마땅히 예의로써 서로 우선시해야 하니]	師生之間엔 尤當以禮義로 相先하니	22~23
	[사람으로서 사물을 보면 사람은 귀하고 사물은 천하다.]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물을 천하게 여기는 것]	以人視物, 人貴而物賤 / 人之所以貴人而賤物	88~89
지학사(김)	동사 '可(以)'의 특수용법: ~할 수 있다.	一心은 可以處萬事나,	30~32
	[연세가 칠십 이상의 노인을 초청하여 경치 좋은 곳에 모시고 그분들을 위로하였으니, 이름을 '청춘경로회'라고 한다.]	靑年七十以上 하여 會于勝地하고 以慰之하니 名曰 靑春敬老會라하다.	86~88

<표7>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분석

출판사	이의 쓰임 설명	페이지수
교학사	<p>* 허사의 쓰임 - 以</p> <p>(1) 개사로서, 주로 명사의 앞에 위치하여 도구, 수단, 자격, 대상, 원인, 시간 등의 뜻을 나타냄</p> <p>(2) 접속사로서, 단어와 단어, 어구와 어구 등을 서로 이어주는 구실을 함.</p> <p>(3) 以爲~ : ~라고 여기다.</p> <p>(4) 可以~ : ~할 수 있다.</p> <p>* 연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頗以積著名 : 자못 모은 것으로써 이름이 났다. • 萬德取十之一 以活親族 : 만덕이 10분의 1을 취하여 친족들을 살렸다. • 咸以爲活我者萬德 : 모두 다 우리를 살린 사람은 만덕이라고 여기다. • 可以得官矣 : 관직을 얻을 수 있다. 	180
다락원	<p>* 품사의 종류와 특성 - 以</p> <p>(1) 명사류 앞에서 자료의 뜻을 나타내는 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盡以所著授之 <p>(2) 명사류 앞에서 도구의 뜻을 나타내는 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今以凹鏡, 配近視 <p>(3) 단어와 단어, 어구와 어구, 문장과 문장 등을 서로 이어주는 구실을 하는 접속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切以爲湯 	82, 104, 126
대학서림	<p>* 한문지식이해</p> <p>(1) 以爲... : ~을...라고 여기다(생각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我以不貪爲寶 : 나는 탐하지 않는 것을 보배라 여긴다. <p>(2) 以는 '~로써'의 의미로 명사류 앞에 위치하여 수단을 나타내는 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不可以力劫之也. <p>(3) 以는 '~때문에'의 의미로 명사류 앞에 위치하여 원인을 나타내는 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以貪吏之激成也. 	72, 216, 232
더텍스트	<p>* 한자의 쓰임</p> <p>(1) 以 : 주로 명사류 앞에 위치하여 도구, 수단, 자격대상, 원인, 시간 등의 뜻을 나타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以鐵鑄器長二尺徑八寸, 置臺上受雨 <p>(2) 以...爲~:~을(를) ~(으)로 삼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可以此爲驗 <p>(3) 是以 : 이 때문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是以, 每有問, 欲知其得失 <p>(4) 以爲 : ~(으)로 삼다, (이)라고 여기다(생각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以爲億兆之君師 <p>(5) 以 : ~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故, 簡言之不足, 則繁詞以暢之 <p>(6) 以 : ~하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彌子矯駕君車以出 	56, 128, 148, 168, 184
두산동아	<p>* 허사의 쓰임</p> <p>허사는 어휘적 의미가 없거나 그다지 실제적이지 않고, 실사(實辭)에 붙어서 단지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단어이다.</p> <p>(1) 명사류 앞에 위치하여 도구, 수단, 자격, 대상, 원인, 시간등의 뜻을 나타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靑眞山水以似畫 • 以古爲鑑, 可知興替 • 以其一與兄 <p>(2) 단어와 단어, 어구와 어구등을 서로 이어주는 구실을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作文以其之 	69

<표4>와 같이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은 한자의 기초를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문 문법 같은 한문지식을 강조하기보다는 한자 및 한문 학습에 흥미를 두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때문에 실사와 허사의 분류나, 품사적 특징을 다루지 않는다. 또한 한자어나 단문의 학습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쓰인 용례가 약 6개 문장에 그치며, 『論語』와 『孟子』의 예문을 쓴 용례는 2개의 문장이 있다.

<표5>에서 알 수 있듯이, 중학교2학년교과서에는 중학교 1학년에 비해 ‘以’를 설명한 용례가 많았으며 개사‘以’의 설명이 가장 많았다. 1학년 교과서에 비해 다양한 ‘以’의 용법들을 설명하고 있었다. 반면, 교과서 본문에 ‘以’를 제시하였으나 내용정리 부분에서 ‘以’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까닭은 앞 단원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以’의 기능을 설명하기 애매한 경우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다락원의 ‘定省不離左右나 而無以爲養’에서 無以의 ‘以’자에 대한 설명은 중학교 학생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以’의 쓰임으로 실사만으로도 충분히 문장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 않는 듯하다.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는 ‘以’자가 쓰인 예문이 30개의 문장이며, 이 중 4개의 용례만이 『論語』와 『孟子』의 원문을 인용한 것이다.

<표6>에서는 ‘以’자가 쓰인 용례가 중2교과서보다 적다. 또한 ‘以~爲…’나 ‘以爲’를 설명하는 사례가 더 많다. 이는 학교급에 따라 한문내용을 위계적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특히 중2교육과정에서 개사‘以’의 쓰임을 배웠다고 가정 하에 설명보다는 본문풀이로 ‘以’의 쓰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표7>은 고등학교 한문 I에 실린 허사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는 표이

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중학교에서 실린 원문의 편폭이 길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위계상 개사로서의 ‘以’의 의미역할을 총정리하여 보여주는 사례가 많다. 대학서림을 제외한 4종의 교과서가 모두 ‘以’의 접속사의 쓰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교학사와 다락원은 직접적으로 ‘접속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표4>~<표7>의 내용을 보아 알 수 있듯이 허사‘以’의 예문이 쓰인 용례는 한 교과서당 2~3회에 지나지 않으며, 난이도를 고려하여 교과서의 내용배열을 정한다고 볼 때, 허사‘以’가 쓰인 예문은 교과서에 후반부에 배열이 되는 편이다. 또한 중학교의 경우는 문법용어를 쓰는 사례가 극히 드물며, ‘以’의 쓰임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지 않다. 이는 한문을 배우는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과 한문학습의 난이도를 고려한 사항이라고 사료된다.

5차 교육과정에서 현행 교육과정을 거쳐 오는 한문문법의 설명의 범례들만 살펴보아도 한문문법의 내용이 간소화 되어가고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는 교과목표에서 한문독해기능신장을 언급하면서도 현재 한문과의 편제시수나,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한문문법의 자세한 학습을 통해 한문을 익히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2. 漢文教科書 內 『論語』·『孟子』의 ‘以’에 대한 분석

1) 介詞

‘介詞’의 경우 품사의 명칭을 정하는데 문제가 제기 되었다. 중국에서는 대부분 ‘개사’를, 우리나라에서는 ‘개사’와 ‘전치사’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나 중국에서 ‘전치사, 후치사’라고 일컬어

지는 용어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의 한문학자, 한문교육에 관계하는 학자들이 다른 교과목에서 사용하는 비슷한 용어를 차용하여 ‘개사, 전치사, 후치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실정이다.⁷⁹⁾

학교문법에서는 7차 교육과정까지는 ‘개사’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前置詞’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현행 2007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중국의 문법용어인 ‘介詞’를 차용하였다.

개사나 전치사 모두 우리 국어문법에 없는 용어이므로 타 과목에서 차용하여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한문문법에서 독자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문법용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문문법에서 개사 혹은 전치사를 설명할 수 있는 문법용어의 정체성이 뚜렷하지 못하다.

그러나 학교문법이 ‘학습자의 문법학습을 돕기 위한 문법’이라는 실용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용어문제에 있어서는 학습자의 한문과 학습수준과 문법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英文法에 이미 익숙한 ‘전치사’를 차용하여 사용할 경우, 기본 어순에서 벗어나 후치되는 사례를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다시 ‘후치사’라는 개념을 사용하거나 ‘명사류 앞에 위치한다’는 개념을 담고 있는 전치사라는 용어의 특성을 벗어난 특수한 용례에 대해 부연하여 설명해야 하는 혼란이 생긴다. 이러한 학습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전치사가 아닌 개사를 사용하게 되면 학습자는 접해보지 않은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학습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한문과에 편제된 시수가 적어 학습의 양이 많아지면 가르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듯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의 문제는 양자택일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문제점을 야기할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하여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학계의 중지를 모아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79) 이군선·김성중, 『한문과 문법론』, 보고서, 2012, 204~205쪽.

사항이다.

본고에서는 고대한어의 문법을 설명하는 이론서의 보편적 의견과 2007 개정교육과정 해설서에 ‘介詞’의 명칭을 따라 사용하고자 한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에서 인용한 『論語』와 『孟子』의 예문 중에 이 가 개사로 쓰인 예는 다음과 같다.

- 富與貴 是人之所以也 不以其道 得之 不處也⁸⁰⁾ (『論語』, 「里仁」 5章)
- [풀이] 돈을 많이 벌고 높은 벼슬을 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 모두 바라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지 않는다면 군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표8> 중학교 2학년 교과서(다락원) 본문

대단원명	I. 짧은 글 깊은 뜻
소단원명	三. 富貴之道
학습목표	정당한 부귀에 대한 명언·명구를 바르게 이해하고, 어구와 절을 알아보자.
교과서 풀이	□ 바르게 읽고 풀이하기 : 부유함과 귀함은 사람이 바라는 바이나 <u>그 도로써</u> 얻은 것이 아니면 누리지 않는다.
부연설명	□ 개사 以 : 주로 명사류 앞에서 도구, 수단, 자격, 대상, 원인 등을 나타낸다.

위의 예는 중학교 2학년 한문교과서의 예문이다. 단원명이나 소단원명을 살펴보면, ‘以’를 주된 학습요소로 삼고 있지 않고, 명언·명구로부터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한 학습목표를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예는 2007교육과정해설서에서 ‘以’의 의미역할을 처소, 대상, 도구, 시간, 원인, 비교 등으로 구분하였을 때 ‘도구’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

80) 송재소 外 4명, 『중학교 한문 2』, 다락원, 2011, 20쪽.

다. 일반 문법에서는 도구의 범주를 ‘구체적인 도구’ 추상적인 의미를 갖는 수단, 자격, 신분, 지위 등으로 세분화하지 않는다. 이는 이론적인 문법을 연구하는 일반 문법에서도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이다. 도구개사의 기본적인 우리말 풀이인 ‘~로써’로 풀이하고 있으며, 부연설명으로 개사 ‘以’의 정의를 덧붙였다.

다음의 예문은 중학교 교과서의 「里仁」편 예문의 편폭만 길어진 고등학교 교과서의 예문이다.

○ 子曰 富與貴 是人之所欲也 不以其道 得之 不處也, 貧與賤 是人之所惡也 不以其道得之 不去也, 君子去仁 惡乎成名, 君子 無終食之間 違仁 造次 必於是 顛沛 必於是⁸¹⁾ (『論語』, 「里仁」 5章)

<표9>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교학사) 본문

대단원명	XI. 성현의 가르침
소단원명	32. 군자의도 孔子
학습목표	1. 군자의 인격특질을 이해한다. 2. 仁의 의미를 이해한다. 3. 문장성분의 도치를 안다.
교과서 풀이	□ 富與貴(부여귀) 是人之所欲也(시/인지소욕야) 不以其道 得之(불이기도득지) 不處也(불처야), 貧與賤(빈여천) 是人之所惡也(시/인지소오야) 不以其道得之(불이기도득지) 不去也(불거야), 君子去仁(군자거인) 惡乎成名(오호성명) [부와 귀, 이것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나 <u>올바른 방법으로</u> 얻지 않으면 처하지 않는다. 가난과 비천, 이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나 <u>올바른 방법으로</u> 얻지 않았더라도 떠나지 않는다.] ⁸²⁾
부연설명	□ 독해 TIP : 不以其道得之 : 부당하게 얻었더라도, 부당하게 빈천한 상황에 처한다 해도 ...

81) 김인중 外 2명, 『고등학교 한문 I』, 교학사, 2012, 234쪽.

82) 원문의 뜻풀이가 중복되므로 교과서 풀이를 따른다.

중학교 교과서의 예문과 마찬가지로 도구개사의 의미로 ‘~(으)로, ~(으)로써’로 풀이하고 있다. 역시 ‘以’의 학습을 학습목표로 설정하지는 않았다.

다음 예문도 <표9>의 예문이 인용된 같은 교과서에 제시된 원문이다.

○ 我 善養吾浩然之氣 (중략) 其爲氣也 至大至剛 以直養而無害 則塞於天地之間 其爲氣也 配義與道 無是 餒也 是集義所生者.⁸³⁾ (『孟子』, 「公孫丑」上 2章)
 [풀이] 나는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중략) 그 기는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하니, 정직함으로 그것을 잘 기르고 조금의 해침도 없다면, 천지 사방에 딱 차게 되어 없는 곳이 없을 것이다. 그 기는 반드시 의와 도에 배합되니, 이것이 없다면 힘이 없게 될 것이다. 이 기는 평소에 의를 많이 축적하여야 만들어지는 것이다.

<표10>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 (교학사) 본문

대단원명	XI. 성현의 가르침
소단원명	33. 대장부의 기상 孟子
학습목표	1. ‘大丈夫’의 인격특질을 이해한다. 2. 浩然之氣의 의미를 이해한다. 3. ‘與와 而’의 쓰임을 안다.
교과서 풀이	□ 其爲氣也(기위기야) 至大至剛(지대지강) 以直養而無害(이직양이무해) 則塞于天地之間(즉색/우천지지간) [그 기됨이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하니, <u>올곧은 것으로써</u> 잘 길러 해침이 없으면, 곧 하늘과 땅사이에 가득찬다.]

도구개사로서 우리말로 ‘~으로써’로 풀이하고 있다. ‘정직함, 올곧은 것’과 같은 추상적의미의 ‘以’의 빈어는 일반문법에서는 ‘수단’의 의미로 분류하였으나, 교과서에서는 실사의 의미와 문맥만으로 ‘~으로써’의 도구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論語』 「學而」 6장의 예문은 ‘以’뒤의 ‘餘力’이 생략된 문장으로 본래는

83) 김언중 外 2명, 『고등학교 한문 I』, 교학사, 2012, 240쪽.

‘以餘力則學文’인 문장이다. 이 구문에서 ‘以’는 개사의 쓰임으로 도구의 의미를 나타낸다.

○ 子曰 弟子立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 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⁸⁴⁾ (『論語』, 「學而」 6章)

[풀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부모님이 거하는 집에서 부모에게 진심으로 공양해야 하며, 자기 집을 떠나서는 연장자를 존경해야 하고, 말을 적게 하되, 말을 하게 되면 성실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여러 사람을 두루 사랑해야 하며, 인덕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렇게 몸소 실천한 후에 남은 힘이 있으면, 곧 더 나아가 문헌을 학습해야 한다.”

<표11> 중학교 3학년 교과서(지학사) 본문

대단원명	Ⅱ. 가치 있는 삶
소단원명	06. 서로의 마음이 되어
학습목표	1.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안다. 2. 문장의 유형을 알고, 어조에 맞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3. ‘恕’와 ‘孝悌’의 의미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교과서 풀이	□ 문장의 내용과 주제: 「제자는 집에 들어오면 효도하고, 밖에 나가면 공손하며, (행동은)삼가고, (말은)믿음직하며, 널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어진 이를 가까이 할 것이니, (이것들을)행하고 남은 힘이 있거든 그것으로써 문예를 배워야 한다.
부연설명	□ 내용파악 : 없음

<표11>에서 알 수 있듯이 위 예문을 학습하는 목표는 한문지식 중 품사의 종류와 특성, 문장의 유형에 중점을 두고 있고, 궁극적으로 ‘孝悌’와 관련한 바람직한 인성함양에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以’자의 구체적인 내용학습요소는 실리지 않았다.

84) 김상홍 外 3명, 『중학교 한문 3』, 지학사(김), 2012, 34쪽.

2) 接續詞

접속사는 ‘연사’로도 일컬어지는 품사이다. 접속사와 연사도 개사와 전치사와 마찬가지로 용어선택의 문제가 놓여있는 품사이다. 본고에서는 국어문법에 이미 존재하는 용어이며 한문교육과정 속에서 문법용어로 쓰였던 접속사의 명칭을 따르기로 한다. 제 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接續詞 ‘以’의 역할을 ‘단어와 단어, 어구와 어구 등을 서로 이어주는 구실을 한다’고 규정하였다.

- 子曰 志士仁人 無求生以害人 有殺身以成仁⁸⁵⁾ (『論語』, 「衛靈公」 9章)
[풀이] 숭고한 뜻을 가진 사람과 어진 사람은 삶에 연연하여 인덕(仁德)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다만 용감하게 자신을 희생하여 인덕을 이룬다.

<표12>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교학사) 본문

대단원명	XI. 성현의 가르침
소단원명	32. 군자의 도
학습목표	1. 군자의 인격특질을 이해한다. 2. ‘仁’의 의미를 이해한다. 3. 문장성분의 도치를 안다.
교과서 풀이	□ 無求生以害人(무/구생이/해인) 有殺身以成仁(유/살신이/성인) : 살기를 구하여 인을 해치는 일이 없고, 몸을 죽여 인을 이루는 일은 있다.
부연설명	□ 以 : ~하여(=而)

위 예문에서 ‘以’는 ‘~하여’라는 우리말로 풀이할 수 있으며, ‘而’와 같은 접속사로 쓰임을 설명하였다. ‘以’의 전후 성분으로 동사 ‘求-害’, ‘殺成’이

85) 김언중 外 2명, 『고등학교 한문 I』, 교학사, 2012, 234쪽.

앞뒤에 위치하여 승접관계를 이루고 있다. 학교문법은 일반문법이 간이화된 것이므로 접속사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있지 않다.

아래의 예문도 승접관계를 이루고 있는 접속사에 대한 설명이다.

○ 老吾老以及人之老 幼吾幼以及人之幼⁸⁶⁾ (『孟子』, 「梁惠王」上 7章)
 [풀이] 자기 집 노인을 공경하여 그 마음을 남의 집 노인을 공경하는 데까지 미치게 하고, 자기 집 아이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남의 집 아이를 사랑하는 데까지 미치게 합니다.

<표13> 중학교 2학년 교과서(대교) 본문

대단원명	Ⅱ. 나, 너, 우리
소단원명	9. 舍己從人
학습목표	4. 한문단문과 성어를 바르게 읽고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5. 품사의 활용을 이해한다. 6. 배려와 관련된 문장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교과서 풀이	□ 품사의 활용 : (老와 幼가 동사와 명사로 쓰임을 설명함) 내 어르신을 <u>공경하여</u> 그 마음을 미루어 남의 어르신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내 어린아이를 <u>보살피</u> 그 마음을 미루어 남의 어린아이에게까지 미치게 하다.
부연설명	□ 以 : ~하여(그것으로써).

다만, 부연설명에서 ‘~하여’라고 풀이하는 접속사의 쓰임과 ‘~으로써’ 풀이하는 개사의 쓰임을 덧붙여 자칫 학습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3) ‘以’의 고정구조

86) 심경호 外 2명, 『중학교 한문2』, 대교, 2011, 44쪽.

‘以’의 고정구조는 ‘以’ 앞에 ‘可, 足, 有, 無’ 등의 조동사 및 동사와 결합하여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와, ‘所以, 所以~者’, ‘以~爲..., 以爲...’와 같이 허사 ‘以’가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 고정구조를 이루어 관용적으로 쓰이는 경우를 말한다. II장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교과서에 『論語』와 『孟子』의 예문에서 쓰이는 용례가 더러 있어 본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 子貢 問曰 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 子曰 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⁸⁷⁾ 『論語』, 「衛靈公」 24章)

[풀이] 자공이 물었다. “한 마디로 평생토록 받들 만한 말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마도 ‘恕(용서하는 것)’가 아닐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어떠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아야 한다.”

<표14> 중학교 3학년 교과서(다락원, 지학사) 본문

다락원 중3	
대단원명	II. 고전의 소리
소단원명	六. 己所不欲
학습목표	공자와 그의 제자 자공의 대화를 통해 易地思之의 자세를 익히고, 명령문을 알아보자.
교과서 풀이	□ 바르게 읽고 풀이하기 : “한마디 말로 평생토록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마도 서(恕)일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부연설명	□ 可以 : ~할 수 있다.
지학사(김) 중3	
대단원명	II. 가치 있는 삶
소단원명	06. 서로의 마음이 되어
학습목표	1. 품사의 종류와 특성을 안다. 2. 문장의 유형을 알고, 어조에 맞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 3. ‘恕’와 ‘孝悌’의 의미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교과서 풀이	□ 문장의 유형에 따른 단문의 소리 내어 읽기 : 한 마디 말에 종신토록 행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87) 송재소 外 4명, 『중학교 한문3』, 다락원, 2011, 40쪽. / 김상홍 外 3명, 『중학교 한문3』, 지학사(김), 2012, 34쪽.

두 개의 교과서에 실린 예문으로, 학습목표에서는 ‘可以’의 쓰임을 다루지 않았으나, 교과서풀이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可以~’의 고정구조가 ‘~할 수 있다’로 풀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足以’의 구문도 ‘可以’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로 풀이한다.

○ 無恒産而有恒心者 惟士爲能 若民則無恒産 因無恒心 苟無恒心 放辟邪侈 無不爲已 及陷於罪然後 從而刑之 是罔民也 焉有仁人在位 罔民而可爲也 是故明君制民之産 必使仰足以事父母 俯足以畜妻子 樂歲終身飽 凶年免於死亡 然後 驅而之善 故民之從之也輕⁸⁸⁾ (『孟子』, 「梁惠王」上 7章)

[풀이] 일정한 생활 근거가 없어도 일정한 마음을 갖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로 말하자면, 일정한 생활 근거가 없으면 그로 인하여 일정한 마음도 없게 됩니다. 진실로 일정한 마음이 없게 되면, 방탕(放蕩)하고 편벽(偏僻)되고 사악(邪惡)하고 사치(奢侈)하는 등 못하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들이 죄에 빠지게 된 연후에 따라가서 처벌한다면, 이는 백성들을 그물을 띄우고 잡는 것입니다. 어찌 인자한 사람이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그물로 잡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임금은 백성들의 생활 근거를 마련함에,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위로는 넉넉히 부모를 섬길 수 있고 아래로는 넉넉히 처자를 먹여 살릴 수 있으며, 풍년에는 내내 배불리 먹고 흉년에도 굶어죽는 것을 면하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한 후에 그들을 유도하여 선한 길로 가도록 하는데, 그래야 백성들이 그를 따라가기가 용이합니다.

<표15>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대학서림) 본문

대단원명	IX. 고전의 가르침
소단원명	17. 인간과 사회의 관계 - 孟子
학습목표	1. ‘足’의 여러 가지 뜻을 알 수 있다. 2. 다양한 접속사의 쓰임을 이해할 수 있다. 3. 맹자의 왕도 정치를 현대사회에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교과서 풀이	<input type="checkbox"/> 문장의 이해 : 없음
부연설명	<input type="checkbox"/> 내용파악 : 없음

88) 신표섭 外 4명, 『고등학교 한문 I』, 대학서림, 2012, 150쪽.

○ 王曰 叟不遠千里而來 亦將有以利吾國乎 孟子對曰 王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⁸⁹⁾ (『孟子』, 「梁惠王」上 1章)

[풀이] 양혜왕이 말하였다. “노선생! 당신께서 천리 먼 길의 노고를 사양치 않고 오셨으니, 이는 우리나라에 큰 이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입을 열자 꼭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인의를 말씀하셔도 될 터인데요.”

‘以’가 ‘有, 無’와 결합하여 ‘有以, 無以’로 쓰이는 자세한 설명은 일반 문법에서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용례이다. 대개 ‘~함이 있다(없다)’로 풀이하고, 교과서 본문풀이에서도 ‘이롭게 함이 있겠습니까?’로 풀이하였다.

<표16>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더 텍스트) 본문

대단원명	II. 성현과의 만남
소단원명	7. 오직 인의가 있을 뿐
학습목표	1. 문장을 어조에 맞게 읽을 수 있다. 2. 한자의 여러 가지 뜻을 알고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3. 성현의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한다.
교과서 풀이	□ 문장풀이하기 : 노인께서 천리를 멀다하지 않으시고 오셨으니, 또한 장차 내 나라를 이롭게 함이 있겠습니까?
부연설명	□ 문장풀이하기 : 없음

‘所以’는 ‘~하는 것’, ‘~하는 방법’, ‘~한 까닭’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본문에서는 원인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다.

○ 孟子曰 君子所以異於人者 以其存心也 君子以仁存心 以禮存心. 仁者愛人有禮者敬人 愛人者人恒愛之 敬人者人恒敬之⁹⁰⁾ (『孟子』, 「離婁」下 28章)

89) 김용재 外 5명, 『중학교 한문3』, 더텍스트, 2012, 36쪽.

90) 송재소 外 4명, 『고등학교 한문 I』, 다락원, 2012, 175쪽.

[풀이]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보통사람과 다른 까닭은 자기의 마음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자는 인으로 마음을 보존하고, 또 예로 마음을 보존한다. 어진 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예의가 있는 이는 사람을 공경한다. 사람을 사랑하는 이는 다른 사람도 항상 그를 사랑하고, 사람을 공경하는 이는 다른 사람도 항상 그를 공경한다.”

<표17> 고등학교 한문 I 교과서(다락원) 본문

대단원명	IX. 고전의 가르침
소단원명	二十四. 孔子, 孟子 공자왈 맹자왈
학습목표	1. 공자와 맹자의 사상이해 2. 문장성분의 도치 이해 3. ‘연쇄’, ‘중첩’의 이해
교과서 풀이	<input type="checkbox"/> 내용과약 : 없음
부연설명	<input type="checkbox"/> 내용과약 : 없음

교과서 예문의 분석결과,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以’의 예문 중 『論語』와 『孟子』의 용례는 1/3 정도에 그친다. 『論語』와 『孟子』가 인용되는 용례도 매우 적고, ‘以’의 다양한 쓰임을 설명할 때에는 다른 원전에서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교과서에 쓰인 ‘以’ 예문을 정리한 <표4>에서 <표7>을 보면 교과서의 후반부에 『論語』와 『孟子』의 예문을 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학습내용의 난이도를 고려한 결과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論語』와 『孟子』에 쓰인 허사 ‘以’의 정의에 대해서 교과서에서는 일반문법을 간소화 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허사 ‘以’의 기능인 개사와 연사를 설명하고자 할 때는 고대한어문법과 국문법, 한문문법 간의 정체성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한편, 내용면에 있어서 ‘以’의 의미론적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일반 문법과의 구분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개사의 의미 중에서도 일반 문법에서는 ‘도구, 원인, 시간, 장소, 대상, 행동, 동반’ 등의 자세한 구분이 있지만, 학교문법에서는 이를 한정지어 ‘처소, 대상, 도구, 원인’ 정도로 한

정지어 풀이하고 있다. 교과서에는 한문문법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말 풀이로써 그 의미만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IV. 結論

본고는 한문과 문법의 새로운 모색을 위하여 『論語』와 『孟子』에 나타난 ‘以’의 쓰임을 분석하여 한문과 문법교육의 맥락에서 문법에 대한 체계적 설명방식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모호한 의미역할의 구분 때문에 한문독해에 어려움을 주는 허사 ‘以’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論語』와 『孟子』를 연구텍스트로 정하였다. 이는 『論語』와 『孟子』의 전적이 고대중국의 口語를 기록하여 당시의 언어적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였다고 여겨져 한어의 문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四書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허사 연구들은 의미론적, 통사론적 관점에서 일반 문법을 통해 허사 ‘以’의 의미와 기능을 정리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문법용어 문제에 있어서 고한어 문법과 영문법, 국문법 사이에서 한문문법만이 가지는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문법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론적 성격을 띄는 문법뿐 아니라,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이고 실용적인 성격을 가지는 문법이 있다. 따라서 한문문법을 학습하는 데에 한문문법만의 독자적 성격을 갖지 못하고 기타 외국어의 문법용어를 차용하거나 혼용하는데서 오는 혼선을 문제점으로 인식하였다.

본고에서는 문법에 대한 연구를 이론적인 문법을 다루는 일반문법과 한문교육을 위한 실용적 목적을 가지는 학교문법으로 나누어 허사 ‘以’를 설명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각각의 문법적 관점에서 규명한 허사 ‘以’의 기능을 개사(혹은 전치사), 연사(혹은 접속사)로 나누

고,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論語』와 『孟子』에 나타난 ‘以’의 용례를 가지고 설명하였다. 그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문법에서 허사는 자립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고, 단독적으로 문장성분을 이루지 못하는 성분이다. 제 학자들의 품사의 분류에 따라 허사에 속하는 품사는 다양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중국과 한국학자들의 허사 하위분류에서 나타난 공통분모라고 볼 수 있는 개사, 연사, 조사, 탄사를 중심으로 허사 ‘以’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일반문법에서의 허사 ‘以’의 정의와 기능을 개사와 연사로 크게 구분지어 정리하고, 『論語』와 『孟子』에서 그 용례를 찾아 분류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주로 문법용어에 대한 쟁점을 간단히 언급하되, 일반 문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보편적인 의견을 수용하여 문법적 내용을 정리하였다. 개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성분에 의지하여 의미를 실현하는 품사이며, 연사는 개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성분이 되지 못하여 문장 속에서 문장성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以’ 개사는 개사 다음에 위치하는 성분과 술어의 관계에 따라 의미론적 기능이 구분될 수 있다. 諸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도구, 원인, 시간, 장소, 대상’으로 나눌 수 있었다. 연사는 의미기능에 따라 주종관계와 병렬관계로 크게 구분 지을 수 있다. 특히 ‘以’가 연사로 쓰일 때는 대등·승접·인과관계를 나타내며 기타 형태소와 결합하여 위의 관계들로 설명할 수 없는 기타 용례들이 발생함을 『論語』와 『孟子』 속에서 예시를 들어 정리하였다.

III장에서는 연구를 위한 이론적인 문법과는 달리 학습자의 한문학습을 돕는 실용적 목적을 가진 학교문법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였다. 먼

저 학교문법의 정의를 규명하고, 한문과 교육과정해설서에 나타난 ‘허사’의 의미와 지도사항들을 최근 20년 내로 한정지어 5차 교육과정해설서에서부터 현행교육과정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7차 교육과정 이전까지는 허자(虛字)의 명칭을 따르고 있었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이전 교육과정들이 허사‘以’의 문법적 내용요소들을 더욱 자세히 다루고 있었다. 이는 한문교육의 위상과 관련된 것으로, 한문교과의 편제 시간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漢文科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도 일반 문법과 마찬가지로 문법용어에 대한 혼용으로 인하여 빗게 되는 정체성문제가 존재하였다. 2007교육과정 개정에서는 개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이전까지는 전치사의 개념으로 설명되어왔다. 이 때 어떤 용어를 선택하더라도 학습자의 학습 부담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조금 개념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여 학습자의 문법학습에 혼선을 빚지 않는 용어를 선택해야 한다. 하여 본고에서는 현행교육과정에서 쓰고 있는 개사라는 용어를 선택하여 설명하였다. 접속사 역시 고대한어문법에서는 연사로 사용하고 있지만, 국문법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용어이므로 학습자의 학습부담을 위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설명함이 옳다.

교과서의 본문에서 ‘以’자가 쓰인 모든 본문들을 출판사 별로 정리하였고 본문풀이와 한문지식을 해설해놓은 것들을 <표4>에서 <표7>에 정리해두었다. 모든 사례 중 『論語』와 『孟子』를 인용한 본문이 많지 않았다. 교과서에서는 『論語』와 『孟子』를 문법적 요소로 설명하기 위한 텍스트라기보다는 선인들의 삶의 지혜와 바람직한 인성함양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는 텍스트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以’의 의미와 기능을 설명할 때 『論語』와 『孟子』의 원문을 인용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한 사례는 거의 없다. 하지만 인용된 원문을 통해 학교문법의 관점에서

개사와 접속사의 용례를 분류하였다. 또한 교과서에서 ‘以’를 설명하는 방식을 부연설명까지 빠짐없이 정리해두었다.

일반문법이 간이화한 것이 학교문법이기 때문에 학교문법에서는 ‘以’를 문법용어를 통해 설명하기 보다는 실사의 의미나 문맥과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뜻을 익힐 수 있도록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여 문법용어의 설명을 최대한 줄여서 설명하고 있다. 교과목표는 한문독해능력 신장으로 설정하였지만, 지도사항에서는 문법을 강조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형태는 한문교과의 이수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한문학습에 대해 학습자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한문의 더욱 명확한 문법 설명방식을 찾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우리나라 한문문법과 현행 중국어 古漢語 문법에서 ‘以’를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를 검토하여 다양한 견해를 수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四書에 나타난 허사 ‘以’의 쓰임을 중심으로 하여 개사와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以’의 의미론적 기능을 밝히는데 국한되어 있어, ‘以’에 관한 더욱 많은 견해를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以’의 통사적 기능 및 다양한 쓰임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되며, 한문문법이 용어문제나 설명방식에 있어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계에서의 꾸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1. 基本資料

성백효 譯註, 『論語集註』, 전통문화연구회, 2005.

성백효 譯註, 『孟子集註』, 전통문화연구회, 2005.

楊伯峻 譯註, 『論語譯註』, 중문출판사, 2002.

楊伯峻 譯註, 『孟子譯註』, 중문출판사, 2005.

2. 單行本

강범모, 『언어, 풀어 쓴 언어학 개론』, 한국문화사, 2009.

顧越, 『文言詞法常識』, 北京, 北京出版社, 1964.

김석근, 『언어학 개론』, 경상대학교 출판부, 2004.

김용길, 『한문해석방법』, 교학사, 2004.

심경호, 『한학연구입문』, 이회문화사, 2003.

譚全基, 『古代語法基礎』, 香港, 中華書局香港分局, 1982.

王力, 박덕준 外 4명 譯, 『중국어 어법 발전사』, 사람과 책, 2003.

원용석, 『한문과 교육과정 변천과 내용체계연구』, 전통문화연구회, 2009.

이군선·김성중, 『한문과 문법론』, 보고사, 2012.

蔣紹愚, 이강재 譯, 『고대중국어어휘의미론』, 차이나하우스, 2012.

Edwin Pulleyblank, 양세욱 옮김 『고전중국어문법강의』, 월인, 2005.

周法高, 『中國古代語法(造句編)』, 台北, 台聯國風出版社, 1972.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編, 『新漢文科教育論』, 전통문화연구회, 2000.

黃六平, 『漢語文言語法綱要』, 香港, 中華書局香港分局, 1978.

허벽, 『中國古代語法』, 신아사, 1997.

문교부, 『고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 해설』, 1988.
 교육부, 『고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 해설』, 1992.
 교육부, 『고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 해설』, 1997.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3)한문』, 2007.
 김상홍 외 3명, 『중학교 한문 1, 2』, 지학사(김), 2011.
 김상홍 외 3명, 『중학교 한문 3』, 지학사(김), 2012.
 김용재 외 5명, 『중학교 한문 1, 2』, 더텍스트, 2011.
 김용재 외 5명, 『중학교 한문 3』, 더텍스트, 2012.
 송재소 외 4명, 『중학교 한문 1, 2』, 다락원, 2011.
 송재소 외 4명, 『중학교 한문 3』, 다락원, 2012.
 심경호 외 2명, 『중학교 한문 1, 2』, 대교, 2011.
 심경호 외 2명, 『중학교 한문 3』, 대교, 2012.
 이동재 외 3명, 『중학교 한문 1, 2』, 비상교육, 2011.
 이동재 외 3명, 『중학교 한문 3』, 비상교육, 2012.
 이명학 외 3명, 『중학교 한문 1, 2』, 금성출판사, 2011.
 이명학 외 3명, 『중학교 한문 3』, 금성출판사, 2012.
 이상진 외 2명, 『중학교 한문 1, 2』, 동화사, 2011.
 이상진 외 2명, 『중학교 한문 3』, 동화사, 2012.
 장윤희 외 1명, 『중학교 한문 1, 2』, 민중서림, 2011.
 장윤희 외 1명, 『중학교 한문 3』, 민중서림, 2012.
 김연중 외 2명, 『고등학교 한문 I』, 교학사, 2012.
 김용재 외 5명, 『고등학교 한문 I』, 더텍스트, 2012.
 박성규 외 3명, 『고등학교 한문 I』, 두산동아, 2012.
 송재소 외 4명, 『고등학교 한문 I』, 다락원, 2012.
 신표섭 외 4명, 『고등학교 한문 I』, 대학서림, 2012.

3. 一般論文

- 변형우, 「『論語』 介詞 연구」, 『中國文學研究』, 韓國中文學會, 제18집, 1999.
- 송병렬, 「교과서 한문 문법에 대한 재고」, 『한문교육연구』, 한국한문교육연구학회, 제10호, 1996.
- 여병창, 「3部 經典중의 ‘以’자 용법 비교 연구-『論語』, 『孟子』, 『荀子』」, 『中國文學研究』, 韓國中文學會, 제33집, 2006.
- 이군선, 「한문과 문법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문교육연구』, 한국한문교육연구학회, 제37호, 2011.
- 임명호, 「한문 끊어 읽기 교육에 관한 연구」, 『한자한문교육』,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제11집, 2003.
- 임종혜, 「한문교과서 문법용어의 실재」, 『한문교육연구』, 한국한문교육연구학회, 제10호, 1996.
- 안재철, 「한문교육에 있어서의 문법용어의 제문제」, 『한문교육연구』, 한국한문교육연구학회, 제10호, 1996.
- 정우상, 「학교 한문 문법 통일의 필요성」, 『한자한문교육』,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제16집, 1996.

4. 學位論文

- 김 영, 『중(한)문 한역 문제점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류준한, 『『孟子』의 개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안승기, 『四書의 虛辭연구』,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임병권, 『『孟子』의 虛詞 ‘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정선미, 『『孟子』副詞語 研究 : 副詞의 범주 설정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08.

정순영, 『三國遺事의 虛詞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차은정, 『『孟子』중의 虛詞 ‘於’와 ‘以’에 관한 研究』,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최정은, 『『論語』와『孟子』에 나타난 접속사 而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한학중, 『漢語文言의 介詞研究 : 『孟子』를 中心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Abstract

Use of '以' in the *Analects*(論語) and *Mencius*(孟子)

-In the Context of Classical Chinese and Grammar
Education-

Ji-hui Choi

Department of Classical Chines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seek a systematical explanation of 'grammar' in the context of classical Chinese grammar education by analyzing the use of '以' in the *Analects*(論語) and *Mencius*(孟子) to find a new path for Classical Chinese and grammar.

A majority of the pre-existing studies on this topic are widely based on the use of 'expletives' in the Four Books(四書;*Great Learning*大學; *Doctrine of the Mean*中庸; *Analects*論語; *Mencius*孟子) but were limited in that they had not found the independent character of classical Chinese grammar among 'ancient Chinese grammar古漢語文法', 'English grammar英文法', and 'Korean grammar國文法'. Therefore, grammar in classical Chinese education remained borrowing or macaronically using grammatical terms of foreign languages and led to the confusion of both the instructor and student. Furthermore, grammatical terms in classical Chinese education showed large discrepancy as the education curriculum was reformed.

Accordingly, unlike the aforementioned research, the current study separated general grammar and school grammar, categorized the functions of the empty morpheme '以' into prepositions and conjunctions from each perspective, and analyzed its limits by reviewing detailed contents. Also, the uses of '以' found in the *Analects*(論語) and *Mencius*(孟子) were classified based on these findings. Major discussions in the processes in each chapter is as follows;

First, expletives cannot have independent meaning in general grammar and were analyzed as unable to function as sentence constituents alone. However, according to the parts of speech classification of most scholars, '以' was studied to have the functions of prepositions, conjunctions, postpositions, and interjections.

In the second chapter, the definition and function of '以' in general grammar was largely sorted as preposition and conjunction and its uses the *Analects*(論語) and *Mencius*(孟子) were classified and analysed. The prepositional '以' displays semantic roles as 'tool, cause, time, location, and object'. When '以' is used as a conjunction,

it shows coordination, order, causation, and other unclassifiable uses when combined with other morphemes. These have been organized with the example from the *Analects*(論語) and *Mencius*(孟子).

The third chapter reviews school grammar. The definition and instructional details of 'expletives' in classical Chinese and educational curriculum guidebook have been reviewed by limiting the time range from the 5th curriculum to the current curriculum. Up to the 7th curriculum, they were referred to as 'xūzì(虛字;particles)' and have dealt the grammatical contents of '以' in more detail compared to the 2007

reformed curriculum.

Classical Chinese Curriculum Guidelines, as well as general grammar, also manifested identity problems due to mixed uses of grammatical terms. Grammatical terms must be chosen so that they explain the concept in a comprehensive manner and does not confuse the students' understanding of grammar. For this reason, this study follows the terms 'preposition' and 'conjunction' as used in the current educational curriculum.

Only 13 sentences were found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classical Chinese textbooks in which '以' was explained with quotations from the *Analects*(論語) and *Mencius*(孟子). Amidst these examples, there were almost no cases where the definition and function of '以' were expounded with citations from the *Analects*(論語) and *Mencius*(孟子). This tendency is thought to arise from regarding the *Analects*(論語) and *Mencius*(孟子) as educational guidelines for ancestral wisdom and cultivation of desirable character than texts for grammatical elements.

School grammar methodizes natural acquisition of the meaning of '以' instead of illustrating it with grammatical terms. Likewise, curriculum objectives are set as increasing classical Chinese reading abilities but lack of emphasis on grammar by instructors may lead to decreased organized schedules for classical Chinese curriculum and elevated pressure of classical Chinese studying in students.

With the goal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a more unequivocal explanation of grammar, this study reviews the difference of describing '以' in the current domestic classical Chinese grammar and China's ancient Chinese grammar to embrace the varying perspectives. However,

because the current study is limited to focusing on the prepositional and conjunctive functions of the expletive '以', further studies on the syntactic function of '以' and its application as other parts of speech are expected to aid in the pursuit and construction of a more definite grammatical explanation system based on various perspectives on its definition and uses.